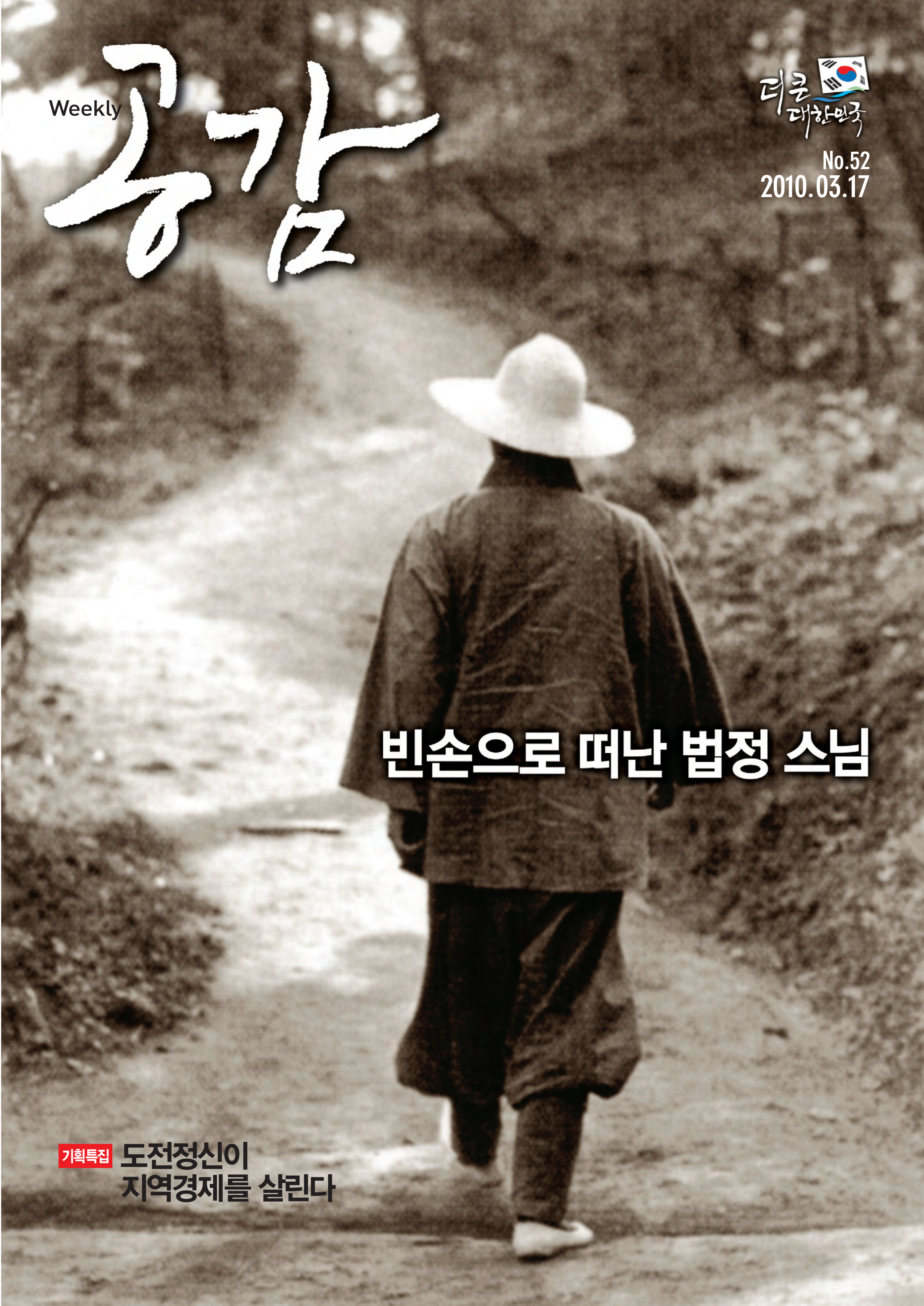
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52
2010.03.17



빈손으로 떠난 법정 스님

기획특집 도전정신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기대됩니다! 4대강살리기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아빠랑 낚시하고, 엄마랑 인라인 타고!
강변음악회가고, 문화재들 보고!
홍수 잡고, 가뭄막고!
강가에서 캠핑도 하고, 밤하늘 별도 보고!
철새도 오고, 물고기들도 놀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강 좋고, 바람좋고!
아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광역화·특성화로 지역 일자리 늘립니다

최상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지역발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로 삼고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 분권화'를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이 그 기본방향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2008년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선보인 뒤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2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또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이어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구성된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했으며 4대강 살리기, 지방재정 분권, 행정구역 자율통합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각종 지역정책도 선보였습니다.

바람직한 지역정책은 지성(知性), 덕성(德性), 야성(野性)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느끼며, 발로 열심히 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의 양 날개인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큰 틀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역정책으로는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올해부터 머리로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가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2010년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차원 지역발전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시켜 일자리와 소득 창출,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바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가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행 중인 기존의 대형 지역개발 사업에 덧붙여 새로운 재정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현 정책의 실천성을 제고하고, 이미 확정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준비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할 정책(政策) 수단을 다듬어왔다면, 2010년은 정책들이 직접 현장에 반영되는 시책(施策) 단계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지역정책',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제2단계 궁극적 목표입니다. G

Weekly
2010.03.17
No.52(통권 153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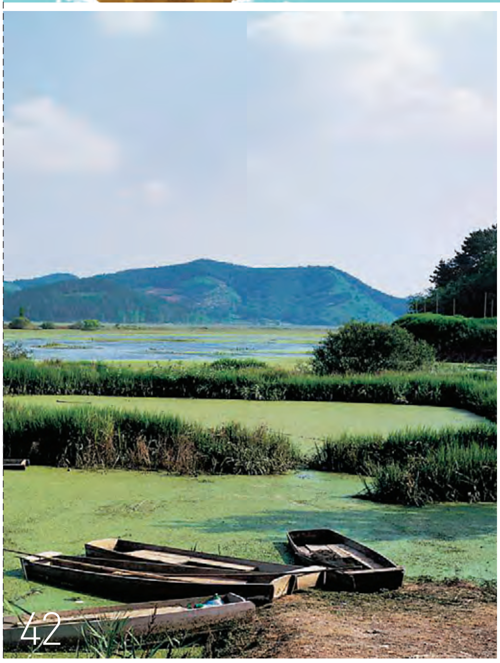
표지 이야기

또 한 분의 큰 어른을 떠나보냈다.
사람 도리 가르치는 이들이 욕심과
집착에 눈멀고, 사람 도리 못 배운
이들이 패륜의 수치를 모르는 세상.
아직 많은 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어른은 갖지도 탐하지도
마음 두지도 않던 그 모습 그대로,
오래전 빈손으로 걸어 나온
그 호젓한 오솔길 거슬러 터벅터벅
빈손으로 돌아갔다.
〈사진·주명덕〉



일러스트·박용인

18



42



14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3.1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이다

2000년대, 국제화라는 신조류를 맞이해 새로운 지역발전 개념이 절실해졌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지역개발 단위의 광역화, 권역별 특성화, 분권·자율경쟁 강화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틀이다.

01 **Reader & Leader** 최상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18 **총론** 5+2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5+2 톺아보기
20 **수도권**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 허브로 우뚝
22 **충청권** '과학 수도' 충청, 21세기를 책임진다
26 **대경권** '전통문화+지식산업' 신성장지대로
30 **호남권** 태양과 바람이 '서해 경제 시대' 이끈다
34 **동남권** 환태평양 최고 물류 중심지 '예약'
36 **강원권** '의료관광'이 강원도의 힘
38 **제주권** 영어가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40 지역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4대강 살리기
42 녹색으로 성장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44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 마을
46 창의력·인재가 지역경쟁력 높인다
48 英·佛·日 글로벌시대 선진국들의 전략

04 **공감 라운지** 직장인엄마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08 **인물**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돌아간 법정 스님
10 **포커스**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한다
12 **이슈** 공기업들, 몸집 줄이고 체질 개선 나서
14 **해외 뉴스** 오바마 美 대통령 "한국을 보라"
16 **인터뷰** 마르탱 르페브르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유럽의 강들도 정부의 노력으로 살아나"

50 **정책 공감**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정부가 나선다
51 **생활 공감** 취업 취약계층 1만명에 '디딤돌 일자리' 제공
52 **클릭 뉴스** 갑작스런 사고로 막막할 땐 '희망길잡이넷'
53 **생활 공감**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전액 지원
54 **생활 정보** 봄나들이 'TAGO' 가자
55 **스타 공감** 60만 장병 오빠들의 서포터 국군방송 홍보대사 f(x)
56 **사람들** 의수족 무료 수리 '에이블 디자인 카' 4총사
57 **이 사람** 김밥할머니의 뜻,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58 **스포츠** 야구 천재 이종범 "나는 아직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60 **위클리 코믹스** 4대강 살리기 ㊹
61 **내 고향 축제** 무창포 주꾸미 축제
62 **書로공감** 〈Green is money〉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64 **문화 공감** 연극 〈유랑극단 쇼팔로비치〉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1호(3월 10일자) 기획특집 '늙어가는 대한민국, 기업도 국가도 非常'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실질적 도움 되는 육아정책 기대"

"'지자체 출산율을 높여라' 기사를 읽고 육아나 교육비,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져 걱정이 아닐 수 없음을 느낍니다. 육아 지원책과 다자녀 가구 우대책, 학비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더욱 보강됐으면 좋겠네요."_최남이

"임신 9개월째인 예비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 기획특집 기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와닿더군요. 임신 후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살펴보니 독특한 혜택과 유용한 정보가 꽤 많더라고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니 철분제도 주고, 모유 수유에 관한 교육 책자도 받았습니다. 또 기사에 소개된 정책대로 잘 추진되면 많은 사람들이 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_김도희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출산 문제에 대해 언제 다뤄주시나 했는데 이번 호 기획특집으로 잘 다뤄주셨네요. 그중에서도 '아침마다 이별하는 직장인엄마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도 공감이 가서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더군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엄마들을 위한 육아 대책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_홍양희

"이성미 씨 기사보며 가슴 뭉클해"

"삼남매를 키우는 이성미 씨의 진솔하고 담백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부터 방송에서 이성미 씨를 보면 참 소탈하고 꾸밈없는 모습이 좋았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더군요. 앞으로는 저도 이성미 씨처럼 자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실천하려 합니다."_김하나

51호 생활 공감 '인문계 대졸자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이번에 졸업했지만 아직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입니다. 저 또한 대학에서 인문계 공부를 했는데, 지금껏 일자리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활동도 가능하다는 정보에 희망을 얻었습니다."_이현우

51호 포토 뉴스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 선정'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제주 거문오름, 충남 서산 천수만 간척지, 전남 순천만 갯벌 등 우리나라에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많았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네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생태관광지를 찾아 여행하면서 감성도 살리고 아름다운 우리 자연도 아껴줘야겠습니다."_박선아


출산에 미래가 달렸다


"살아있는 우리 강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알립니다

직장인엄마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여성부 공익 포털 사이트 위민넷(women.go.kr)은 직장인엄마(워킹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위민넷의 연중 캠페인인 '대한민국 여성의 행복을 찾아서' 중 하나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캠페인은 위민넷을 통해 '시차출근제'나 '가족의 날 확산'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꾸며지며, 직장인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 '가족친화 직장문화 사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워킹맘 이야기' 등 직장인엄마를 위한 특집기사들도 마련된다. 여성부는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즈(miz.co.kr), 맘스쿨(momschool.co.kr) 등 여성 주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3월 한 달간은 직장인엄마를 위한 정책 제안 이벤트도 마련된다. 제안된 의견은 4월 투표를 통해 우수 의견으로 선정해 여성부 업무 담당부서 및 유관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여성부 기획조정실 Tel **02-2075-4585**

기상콘텐츠 경진대회 작품 응모하세요!

기상청은 기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회 기상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공모 대상은 기상관측·예보, 지진 및 기후변화 체험 등 기상과 기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거나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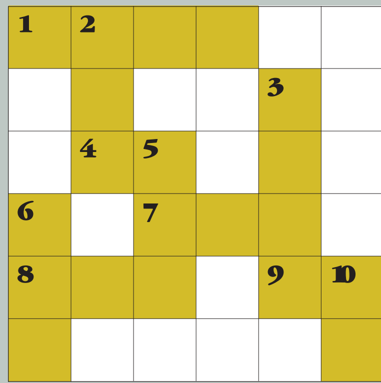
응모 분야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기상콘텐츠 분야(동영상, 손수제작물 등)와 교육·홍보용 기상콘텐츠 분야(교육·홍보 기자재, 만들기 키트 등) 2가지로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코너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표현성, 완성도, 활용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7월 예선심사를 거쳐 8월 본선심사 후 최종 입상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상은 3백만원의 상금과 환경부장관상을, 우수상은 2백만원의 상금과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2개 분야 각 7개 작품을 시상한다.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Tel **02-2181-0563, 0566 kma.go.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3월 24일까지
jjsmai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것. "국토 OOOO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
4. 그 수량이 넷이나 다섯임을 나타내는 말. "OO일 후에 다시 만나자."
7. 다른 나라의 물품을 사들여오는 장사, 또는 그런 상인을 말하죠. 수입상. "외국 OOO와 판매 계약을 맺다."
8.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놓는 걸음걸이. "막내는 지금 OOO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9. 속으로 품은 작은 뜻,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거나 잘못 사용하면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세 로

2.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품사.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하며,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의 서술어가 되죠. 그림씨.
3. 농촌과 산촌과 어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 'OOOO 전원학교.'
5. 다음은 누구일까요? 키 1백87센티미터, 1961년생, 노벨평화상, 태권도, 미셸, 미국 대통령, 흑인, 버락 OOO.
6. 요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술의 하나. 고두밥을 지어 누룩, 물을 섞은 후 발효시켜 만들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식'의 한 가지로 일본 등지에 수출까지 하고 있죠.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이 술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0.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 지방. "OO경제를 살리고 OO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Weekly 공감〉 50호(3월 3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공부자 3 모집 5 육성회 7 전형 8 입학사정관제
세로 1 공교육 2 자모회 4 난형난제 6 성리학 9 정시

〈Weekly 공감〉 50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기정 ·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김현희 · 경북 안동시 태화동
안현미 · 전남 나주시 남내동
위현숙 · 서울 양천구 목2동
장은주 · 인천 부평구 부평2동

GONGGAM 공감 라운지 KOREA

독자 ♥ 공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회사원 신은미(28) 씨는 지난해 겨울,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Weekly 공감〉을 처음 접했다. 처음에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잡지니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충 훑어보다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정감 가는 인터뷰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술술 읽히는 게, 정말 재미있었다"고 한다. 그 후 〈Weekly 공감〉 애독자가 된 신 씨는 〈Weekly 공감〉에 할 말이 많다며 독자 공감 인터뷰를 요청했다.

〈Weekly 공감〉을 접하고 느낀 소감이 있다면.

〈Weekly 공감〉은 '정부가 만든 잡지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깼어요. 보통 시사 주간지와 두께도 비슷하고 최근 시사 관련 정보도 많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잡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잡지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워요.

〈Weekly 공감〉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까지 정부 부처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던 서비스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나 국민들이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를 소개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소한 가족들의 일상을 다루는 에세이나 이를 주제로 한 소설이 연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정말 함께해주는 사람들은 '가족'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Weekly 공감〉이 추구하는 따뜻한 삶의 메시지를 많은 독자들이 나눴으면 합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동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 '직장 스트레스 관리해주는 한국EAP협회 상담사들' 기사를 읽고 직장인으로서 공감한 바가 큽니다. 사실 직장인들은 업무 부담, 인간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직장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가진단표'도 우울증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2. '늙어가는 대한민국, 기업도 국가도 비상'이란 기획특집은 그 제목만으로도 섬뜩했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 당사자인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음은 난제(難題)요, 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산 가족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매년 3월 22일은 '물의 날'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물 절약 실천 사례나 물 절약을 위한 좋은 방안을 취재해 국민들이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Weekly 공감〉에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옥희 부산 북구 화명3동

1. '지역공동체 힘 모아 일자리 3만 개' 기사를 읽고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 대학 모두 중지(衆智)를 모아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2. 기획특집 기사 중 '사교육비 잡아야 출산율 오른다'를 읽고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기에 자녀조차 제대로 낳을 수 없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자녀 양육비나 출산 지원금,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등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정부의 지원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최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특단의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7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수도권과 40분대의 기업하기 좋은 고장 강원도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이유 !

- **교통여건이 확 달라졌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서울~춘천 38분 09년7월15일)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13년완공)
  제2 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원주:13년완공)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연장:13년완공)

- **친 기업적인 행정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대신 공무원이 One Stop으로 민원을 해결합니다.

- **저렴한 용지,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렴한 부지(수도권에 비해 10분의1 수준)
  기업이전보조금 : 최고 120억원 까지 지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취득세 ·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감면등

연락처:강원도청 기업유치과 (033)249-2177
www.gwd.go.kr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돌아간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은 입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 "수의도 관도 마련하지 말고 평소 승복 그대로 다비하라"고 했다. 자신이 쓴 책도 더 이상 출판되길 원하지 않았다. 올곧은 수행자로, 영혼을 깨우는 문장가로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가르침을 준 스님은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났다.



길상사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대중의 물욕을 꾸짖었다. 2008년 3월 길상사로 찾아온 신도들을 위해 법정 스님이 저서에 친필 사인을 하고 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이 세상에서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사용해달라. 머리맡에 남아 있는 책은 내게 신문을 배달하던 사람에게 전해달라."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강조한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법정 스님이 3월 11일 오후 1시 52분쯤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5세, 세수 78세. 2007년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스님은 이날 낮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서 길상사로 몸을 옮겼다. 스님은 병상에서도 계속 강원도 오두막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곳에는 눈이 쌓여 접근이 불가능해 상좌 스님들이 길상사로 모셨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산문집과 법문을 통해 삶은 매 순간의 있음에 불과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나답게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가르쳤다. 스님의 산문집과 법문이 많은 사람의 가슴에 울림을 준 것은 그가 자신의 말과 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절대 장례의식 치르지 말라" 당부

1932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법정 스님은 1954년 당대의 선승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광사, 쌍계사, 해인사 등에서 수행했고 1975년부터 17년간 송광사 뒷산 불일암에서 홀로 살았다. 스님의 명성이 높아져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으로 옮겼다. 스님은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의 회주를 한동안 맡았을 뿐, 그 흔한 사찰 주지 한 번 지내지 않았다. '나답게' '단순하게' 사는 길을 찾아 버리고 또 버리며 살아온 삶이었다.

법정 스님에게는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우주 질서의 한 부분이었다. 류시화 시인이 법정 스님에게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스님은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돌아가는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스님은 입적 전 부질없는 장례의식을 치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절대로 다비식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이 몸뚱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나무들을 베지 말라. 내가 죽으면 강원도 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2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를 방문해 법정 스님의 빈소에 조문했다.

두막 앞에 내가 늘 좌선하던 커다란 넙적바위가 있으니 남아 있는 땔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얹어 놓고 화장해달라.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 공양을 바치던 오두막 뜰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어떤 거창한 의식도 하지 말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라.”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홀로 지냈지만 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하지 않았다. 1996년 고급요정이던 대원각을 기부받아 길상사를 창건한 후 1년에 몇 차례씩 법문을 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서 시대의 잘못을 꾸짖고 세상살이의 번뇌를 호소하는 대중들을 위로했다.

또한 탁월한 글 솜씨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이기도 했다. 스님은 해인사에 머물 때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을 가리켜 “빨래판같이 생긴 것이오?”라고 묻던 아낙네의 말을 듣고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 있는 한 한낱 빨래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부처의 가르침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옮겨 전할 방법을 찾았다. 이런 뜻을 담아 1976년 펴낸 책이 스님의 이름과 동의어처럼 불리는 산문집 〈무소유〉다. 그 외에도 법정 스님은 〈내가 사랑한 책들〉 〈아름다운 마무리〉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일기일회〉 등 30종의 책을 썼다.

하지만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법정 스님에게 책은 ‘말빚’일 뿐이었다. 스님은 자신의 책과 관련해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따로 했다.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우리 사회는 또 한 사람의 정신적 스승을 잃었다. 법정 스님의 인품을 존경했던 추모객들의 행렬은 법구(시신)가 송광사로 옮겨지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조문을 하는 시민들은 스님의 유언대로 조용하고 단출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묵언과 삼배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길상사에는 맑고 청아한 죽비 소리만 가득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이 조문했고 원불교 박청수 교무, 장경동 목사 등 타 종교인들의 추모도 잇따랐다. 법정 스님은 불교계의 큰 어른이었지만 천주교나 개신교, 원불교 등 타 종교에 대해서도 담을 쌓지 않았다. 고 김수환 추기경을 길상사 개원 법회에 초대하는가 하면, 천주교 신문에 성탄 메시지를 기고하고 명동성당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주옥같은 법문으로 시대와 대중을 위로해

이명박 대통령도 3월 12일 오전 길상사를 찾아 조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분이시고, 그래서 저서도 많이 읽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등 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길상사를 찾았다.

3월 12일 정오 어른 몸 너비 정도의 대나무 평상 위에 가사로 덮인 법정 스님의 법구는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순천 송광사로 옮겨졌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했던 법정 스님은 입적하는 길에도 관 없이 무소유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법정 스님의 다비식은 13일 오전 11시 송광사에서 진행된다.

다비식을 준비하는 진화 스님은 “법정 스님은 번거로운 장례 절차를 일절 행하지 말고 수의도 준비하지 말고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며 사리를 찾지도, 탑을 세우지도 말라고 상좌에게 늘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송광사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공식적인 장례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 또 간결한 다비식 외에 영결식 등 특별한 장례의식도 치르지 않을 예정이다. 조화나 부의금도 받지 않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한다

신상공개 강화·재발 방지 등 성범죄 근절대책 도입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등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와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야는 이달 말 국회에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등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아DB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는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자가 위치추적 등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영구 상해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다가구주택에서 실종된 여중생 이모(13) 양은 3월 6일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다.

경찰은 3월 10일 이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 씨를 시신 유기 현장과 가까운 덕포시장 근처에서 검거, 김 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12일 구속됐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 씨는 이미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성범죄자 사후관리·예방대책 다각도 강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사후관리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성범죄 근절책을 도입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관리와 성범죄 예방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이달 말 여야는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공소시효 연장 등 성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으며,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사범을 위한 집중 심리치료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및 성폭력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모임을 갖기로 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다. 2008년 9월부터 도입한 전자발찌, 즉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는 성폭력 전과자가 발찌와 함께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지녀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의 개인휴대단말기(PDA)로 통보되는 것이다. 전자발찌의 위력은 컸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

발찌법 시행 이후 1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총 4백72명 가운데 1명만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데, 이는 전자발찌 미부착 성폭력범의 재범률(35.1퍼센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효과가 입증된 전자발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최소 부착 기간(1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더라도 이동경로 확인 외에는 별도 관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착 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현장 방문 지도, 조사, 밀착 감독 등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음주 감경(減輕) 방지 법안도 강화된다. 지난 2월 국무회의는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두순 사건에서 논란이 된 '심신미약 감경' 관련 형법도 보완된다. 성폭력 범죄자가 음주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심신마약 감경'을 적용받으려면 전문가의 감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치료 차원의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책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아동 성폭력 사범을 위한 집중 심리치료센터를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심리치료센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심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범죄자 1백여 명이 입소해 6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출소예정일이 2년 이내인 아동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3개월간 90시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 재발을 예방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향후 경기 의정부, 경북 포항, 전남 목포에도 각각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아DB


동아DB

안타깝게 희생된 여중생 이모 양의 영결식이 3월 9일 유족들의 오열 속에 치러졌다.
이모 양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 씨가 3월 10일 검거되어 부산 사상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한편 김길태 씨가 검거된 당일, 경찰청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의 모임을 만들었다. 아동·청소년 및 성폭력 관련 공무원들이 만든 이 협의체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 권현정 여성청소년과장은 "첫 안건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단 한 명도 등록돼 있지 않다. 올해부터 범죄를 저지른 뒤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만 올리기로 한 탓이다. 협의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 대상을 올해 이전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1천17건이나 발생했다. 하루에 2.78명꼴로 피해를 본 셈이다. 특히 2006년 이후 5년 동안 일어난 주요 어린이 납치살해 사건 5건은 모두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조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성폭력 상담·신고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02-338-5801~2 (상담시간 월~금, 10시~17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fc.womenlink.or.kr) 02-739-1366~7 (월~금, 10시~17시30분)
여성긴급전화 (여성부와 서울시 위탁) (seoul1366.or.kr)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www.wm1366.org) 1577-1366 (24시간)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24시간)
사이버경찰청 cyber112.police.go.kr 국번 없이 112

공기업들, 몸집 줄이고 체질 개선 나서

LH 등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 사례 선보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는 몸집을 줄이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체질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진행돼왔다. 민영화 로드맵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통폐합, 폐지 등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적 선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인사와 임금제도 등에서 다양한 선진화 사례들을 선보이고 있다.

공기업이 매년 '수능'처럼 치르는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중 서비스진흥·제조 유형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선진화 작업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08년 7월 취임한 김신종 사장은 취임 직후 본부장 전원과 간부사원 47명 중 44명의 보직을 바꿨다. 간부 중 9명이 팀원으로 강등됐고, 직원 12명이 간부로 발탁됐다. 연공서열보다 능력과 성과가 우선이란 경영철학에 따른 것이다. 올초에는 대리나 과장급이 파견되는 관례를 깨고 최고위급 간부 3명을 해외사업 현장에 파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또 비핵심사업 매각 등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적극 이행,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하려던 골재사업 출자회사 NRC를 지난해 말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은 해외사업 투자비로 사용됐다.

노조도 달라졌다. 지난해 공사 노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임금동결을 선언했으며 공기업 중 처음으로 인사·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는 등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무분규, 무파업 전통을 이어가며 매년 노사관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임금 중 1~3퍼센트를 반납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우수 사례 발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같은 우수한 공기업 선진화 사례를 발굴하려는 정부의 관심도 높다. 3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회

동아DB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사진 중앙)이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가평군 규석광산 시추작업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의장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최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 사례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공기업 선진화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 사장에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1월 19일 단행한 첫 인사에서 혁신적으로 연공서열을 파괴했다. 1, 2급 직원 80여 명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신 26개 부서장과 1백39개 팀장급을 능력 있는 하위직에서 발탁했다.

투명한 인사 · 성과연봉제 등 확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파격인사를 뒷받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직급별, 직군별, 출신별 대표자로 구성된 '특별인사실무위원회'와 부사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된 '보임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팀장급 이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선택하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해 지난 1월 경쟁에서 탈락한 2급 간부 4명을 팀원으로 발령했다. 경쟁 탈락자와 평가 부진자는 3차례의 교육과 복귀 기회를 갖게 되며, 이후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직권 면직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지난해 2월 개명한 한국거래소는 올 들어 임원의 50퍼센트와 부서장, 팀장 40퍼센트를 교체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쇄신을 단행하고 '부하직원 선택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향후 '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정원 감축과 간부직 비율 축소, 임금 조정 등 개혁을 지속할 예정.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확대했다.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해온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연봉제 확대를 놓고 실시한 찬반투표에선 반대표가 68퍼센트로 나왔으나 연봉제 대토론회, 대면설득 등을 거쳐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해 77퍼센트 찬성이란 결과를 얻었다.

철도시설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2급 이상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차등폭을 기존의 20퍼센트에서 1백 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과연동형 보수체계를 구축했다. 올 상반기 중 노사 합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벌어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노조(유니언숍)를 '오픈숍'으로 전환해 단체협약을 개선했다. 조합원 의사에 따라 노조 탈퇴가 가능하게 됐고, 조합간부 전보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한국관광 서포터스와 주한 외교사절들이 2월 21일 순천만을 찾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인사제도 혁신 등 공공기관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기업, 민간보다 과감한 시도 해야"

이 대통령, 공공기관장 만찬서 당부

"2년 전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이름을 붙인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각오가 담긴 것입니다. 공공기관장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해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9일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부부 동반)과 관계부처 장관 등 1백70여 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하다가 실패해도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굳어 있는 것을 깨려면 큰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됐는지 생각해보곤 한다는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국가를 위해 바른길이라고 생각하면 하게 된다"며 "여기 계신 공공기관장들도 이 일을 왜 맡았을까 생각하고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2, 3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많은 성과를 낼 국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3년간 노력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보라"

오바마 美 대통령, 1주일 동안 3번 '한국 예찬'

일주일간 3번이나 한국을 칭찬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태권도를 배워 녹색 띠를 딸 정도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UAE 원전 수주 등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칭찬에 앞장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예찬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월 23일 국내 방송의 9시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현지시간으로는 2월 22일)도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한국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는지 시간 순으로 살펴보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월 16일 메릴랜드주 랜햄의 한 노조교육센터를 방문해 "현재 세계에서 건립 중인 원전 56기(基) 가운데 21기가 중국, 6기가 한국, 5기가 인도에서 건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우리가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데 실패하면 이러한 기술을 수입해야 하는 뒤처진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동아DB



지난해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태권도 정권 지르기 자세를 선보이고 있다.

사흘 후인 19일에 또다시 한국을 언급하며 미국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네바다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 상공회의소 회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고속열차 강국'으로 한국을 거론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2월 22일 또 한 번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예로 들며 미국의 '따라 배우기'를 고무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의 주지사들을 만난 그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방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나눈 대화를 다시 거론했다.

"기초학력 부진한 미국 교육 시스템… 한국 교육열 배워라"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자주 언급했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한국의 자동차 경쟁력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했다. 취임 후에는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여러 번 찬사를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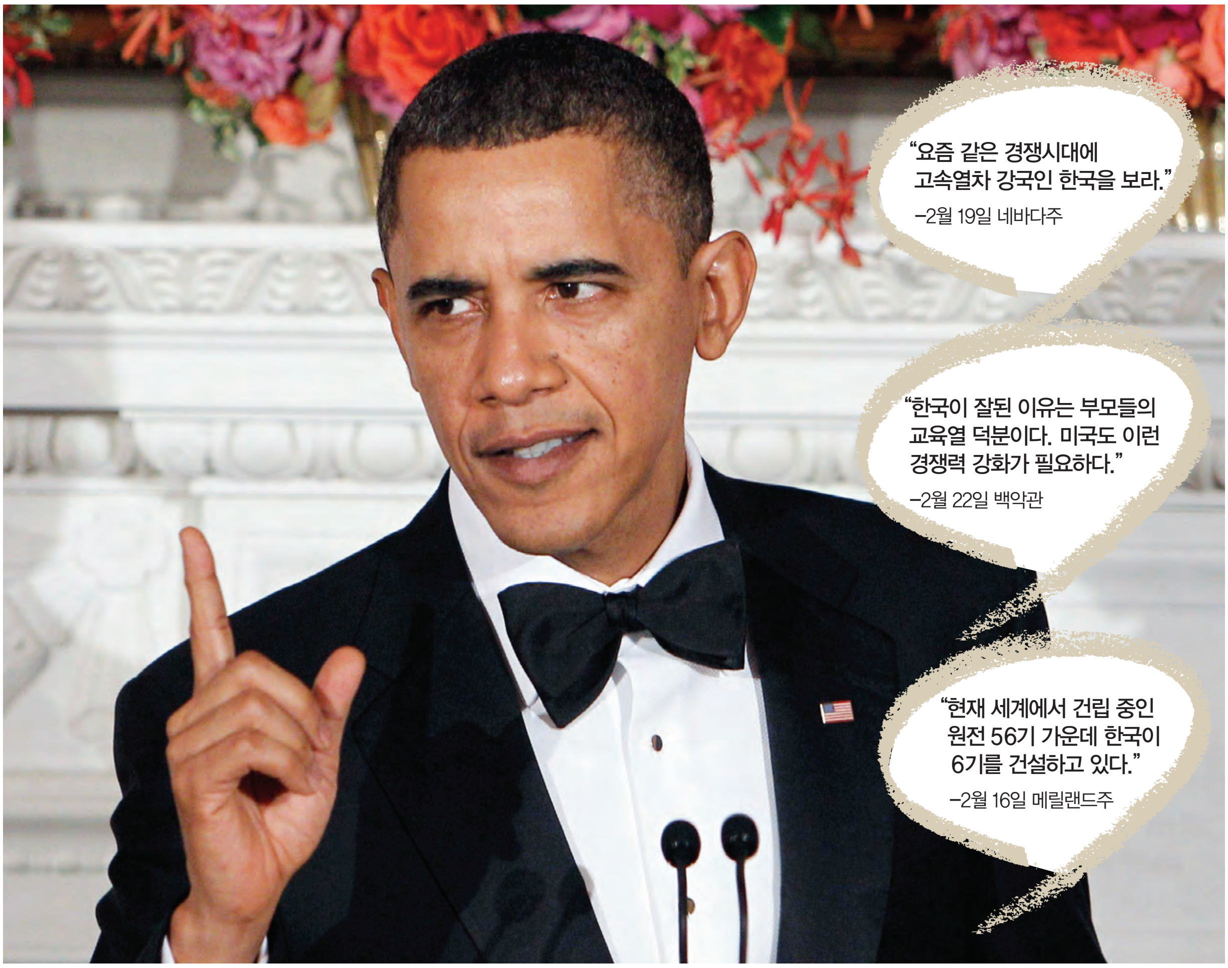
그는 왜 이렇게 한국을 자주 언급할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만한 까닭이 있다. 우선 미국이 당면한 과제들에서 유독 한국이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가 교육이다. 미국에는 세계적 명문 대학이 즐비한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그것은 대학에 국한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미국은 대학에 가서야 공부를 많이 시키는 시스템이다. 그 전 단계에서는 외국에 비하면 수업 일수도 적고 기초학력도 낮은 편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 공립학교 중에는 중도 퇴학률이 40~50퍼센트나 되는 학교가 수두룩하고, PISA(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의 수학, 과학 성적은 선진국 중 하위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7일 미국 학생의 과학과 수학 능력이 한국 등지의 학생들보다 뒤지고 있다며 과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퍼센트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과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교육이 최우선 과제이며 한국이 좋은 사례라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 고속철도, 풍력, 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AP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공개석상에서 가장 자주 한국을 우호적으로 언급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그의 '한국 예찬'은 개인적인 관심과 더불어 교육열, 원전 수주 등 한국의 국력 상승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앞서가고 있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자극이 될 만한 대목이다. 원자력의 경우 미국은 지난 30년간 건설을 중단해 원전기술 수준이 후퇴한 반면, 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서 초대형 사업 수주를 하는 등 이 분야의 강국으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에겐 원전기술 분야에서 단시일 내에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좋은 사례로 비쳤던 것이다.

개인적 관심과 한국 국력 상승 맞물려 '시너지' 효과 톡톡

여기까지는 우리로서는 기분 좋은 대목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유쾌하지 않은 대목도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고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면서 올해 일본을 뛰어넘고 미국을 바짝 추격할 것이 확실시되는 나라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서 아직 이미지가 약한 나라다.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한국은 한국전쟁과 과격 시위, 태권도 정도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개발도상국쯤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바마 처지에서는 "한국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미국이 이래서야 되겠냐?"며 국민에게 자극을 주기에 한국은 안성맞춤인 나라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도 있다. 그 자신이 혼혈이어서 이(異)문화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데다 상원의원 시절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태권도를 배워 녹색 띠를 따는 등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다. 주위에 비중 있는 한인 참모도 적지 않다. 이런 요인과 한국의 국력 상승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 대통령 중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고 우호적으로 말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다. 우리로서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좋게 말하는 것이 물론 기분 좋은 일이다. 한국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칭찬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실속을 채워나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고. G

글 · 박영철(주간조선 차장)

"유럽의 강들도 정부의 노력으로 살아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MOU… 제주 방문한 마르통 르페브르 총장

뉴데일리 제공



지난 5일 제주를 방문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은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합리적'이라며 지지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 사무총장은 한국의 4대강 살리기를 '합리적인(reasonable)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강이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되살아났다고 들었다"며 "과거 유럽의 많은 강들도 수영이나 낚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염됐지만, 중앙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지금은 인간의 삶에 가까운 강으로 되살아났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은 "강 개발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보존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언제나 생겨나게 마련"이라며 "(한강처럼 다른 강들이 다시 잘 살아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해서도 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큰 감명을 받은 듯했다.

"한라산에 올랐더니 눈 아래로 빌딩 숲 대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져 반했어요. 한국의 미(美)에 거듭 놀랐습니다."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꼽은 최고의 음식은 김치. 맵거나 짜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밝게 웃으며 "서양음식 중에도 매운 음식들이 있지 않냐"며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했다. 김도 매우 우수한 음식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3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태환 제주지사,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이 서명한 1차 양해각서에는 이번 총회에 세계자연보전연맹 및 유관기관, 회원국 대표단, 산하위원회 등 약 8천명이 참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과 비자 발급, 숙박·교통·홍보계획이 포함될 2차 양해각서는 2010년 10월 전에 체결될 예정이다.

"한라산 절경에 반해… 한국의 美 놀라워요"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은 제주도가 총회를 개최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제주도 전체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 손색이 없다"며 총회 준비 전반에 걸쳐 만족감을 표시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약 1만여명의 국내외 환경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총회 개최를 통해 총 1천3백억원가량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G

글 · 최유경(뉴데일리 기자)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바쁜 시절이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1960년대 이후
잘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온 나라가 경제발전 한길로 매진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고속 경제성장. 그러나 성장의 과실은 편중됐다.
지역 간 냉온(冷溫)이 엇갈렸고 감정의 균열도 깊어졌다.
이제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지역개발 단위의 광역화, 권역별 특성화, 분권·자율경쟁 강화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틀이다.





일러스트·박용인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존의 경계를 초월해 설계됐다.
사진은 전국을 동서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초광역개발권'의 하나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중 울산석유화학공단.

5+2 광역경제권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광역 단위로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간 협력과 경쟁, 분권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신(新)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재선에 성공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역정책의 방향을 확 틀었다. 수도권 분산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을 추구하던 지역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보다 한 해 앞선 2001년,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출범과 더불어 일본의 지역정책은 과거의 '균형발전'에서 '지역 간 경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했다. 수도권 공장제한법도 폐지됐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의 '신노동당'은 1997년 집권 후 제조업 와해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격차 해소 중심에서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글로벌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지역정책도 이처럼 새로운 방향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

동아DB

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공동체에 관한 발언 역시 이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역시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가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다. ‘균형·혁신·분산’에서 ‘상생·경쟁·분권’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전환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의 요체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이명박 정부 2년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2차 국정성과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산술적, 결과적 형평에 치우쳐 행정구역 간 키 맞추기식 균형정책에 머물러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대립구조가 심화되고 중앙 주도의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그간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광역경제권 발전 방안은 전 국토를 5+2 광역경제권, 1백63개 기초생활권, 벨트식 개발로 열린 국토를 구현한다. 또한 인근 국가와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4+α의 초광역개발권 등 3개 유형의 공간 범주로 구획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경제, 특성화 발전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를 초월한 광역 단위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발전 정책의 공간 단위를 종전의 ‘16개 시도 단위’에서 벗어나 ‘5+2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과 ‘초광역개발권’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그리고 시도 단위를 초월하는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각 광역권별로 광역권발전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말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 각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별로 광역경제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부문별 추진방안,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지역발전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발전 방안은 전 국토를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5+2 광역경제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백63개 기초생활권 △‘벨트식 개발’로 열린 국토를 구현하고 인근 국가와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4+α의 초광역개발권 등 3개 유형의 공간 범주로 구획했다. 이 범주별로 각각 성장잠재력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개방협력 촉진에 목표를 둔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구상했다.

지역 자율성·책임성 강화하는 분권적 지역발전 촉진

4대강 살리기와 새만금 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도 수변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각 권역에서 작성한 계획안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역발전위원회의 검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중앙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과 지역의 이러한 구도는 종전의 중앙집권적, 시혜적인 지역균형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적 지역발전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송유경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지역정책은 균등발전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발전을 추구하며,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5+2 광역경제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1백63개 기초생활권정책이다.

이 두 정책이 대내적 관점이라면 초광역개발권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근 국가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적 관점에 따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을 이번 정부의 지역정책과 어떻게 연계하고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지역발전위원회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등 새롭게 편성된 광역경제권 추진체계들이 하루빨리 우리 현실에 맞게 조화와 통합, 관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착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 허브로 우뚝

수도권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중심지다. 국내 1백대 기업체 본사의 90퍼센트, 전체 수출액의 33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구조, 공간인프라 자원 등에서 일본, 중국의 대도시권에 적잖이 뒤처져 있다. '수도권은 저절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고정관념의 전환, 새로운 위치선정(Positioning)이 절실히 요구된다.

수도권

서울x+경기y+인천z=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단, x≠y≠z).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 방향과 비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방정식이 잘 어울린다. 서울, 경기, 인천이 보유한 기본 역량에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적용시킨 뒤 이들을 연계해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경제권을 위한 발전계획(안)'을 통해 수도권이 가진 과학기술 인력, 정보기술(IT), 광역인프라 등의 강점을 활용해 동북아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역시 서울·경기·인천 간 '개성'의 발전과 '연계'가 핵심이다. 이를 전제로 수도권광역발전위원회가 최종 목표인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달성을 위해 내놓은 4대 중간 목표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산업 진흥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및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광역인프라 구축과 발전 거점의 지역 간 연계 강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여건 개선 △전 지구적 에너지·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조성 등이다.

아직 다른 지역처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특화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사업계획이 주관 부처와 적절히 협의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조사평가과 이기배 팀장은 "창조적 지역 발전 차원에서 국비가 수도권발전계획사업에 지원된 경우는 아직 없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계획하기 전 단계에서 이뤄진 광역단체와 위원회의 사전활동은 다른 지역보다 한 '스텝'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계획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발전 연계로 수도권 광역발전

일단 4대 중간 목표 가운데 지식기반 및 서비스산업 육성 분야가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은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금융보험업, 바이오사업, 디지털콘텐츠 사업, 도소매업 분야, 경기도는 정보통신산업, 생명산업, 제조업, 인천은 물류, 자동차, 운수업 등이 구조적으로 특화돼 있다. 더욱이 고급 인력, 대학, 연구소, 기업 본사 등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광역경제개발위원회는 이처럼 지식기반 및 서비스산업, 첨단 산업 육성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기반의 장점을 살려 지난해 과학기술 진흥 및 문화·관광 육성, 인력 양성 부문의 신

동아DB





인천은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왼쪽).
수도권을 동북아 의료관광 네트워크의 선도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육성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동아DB

수도권광역경제권에 '수도권 지능형 메카트로닉스(IMT) 산업 기술인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제안됐다. IMT기업 협의체가 꾸려지는 송도 테크노파크의 상공 사진.

규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과학기술 진흥 분야에선 수도권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지원 사업이 신규로 제안됐다. 지식서비스 수요 기반이 취약한 첨단 IT 및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기술 이전, 경영 컨설팅, 해외시장 판로 등의 핵심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올해부터 2013년까지 아웃소싱 포털 구축 및 지식재산권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이어 지식서비스 품질 보증 특성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도 전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 경영 컨설팅 사업, 수도권 전역의 산업 및 기술 분포 등을 나타낸 '수도권 신산업 기술지도' 제작도 신규 사업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동아DB

문화·관광 부문 특성화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도 가시권에 와 있다. 특히 수도권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주목을 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내 전문 의료기술과 병원인프라를 활용해 의료기술을 상품화하고, 여가 및 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해 동북아의 '의료 & 웰빙' 네트워크 선도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2013년까지 경기 광교, 오산 등에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고, 수도권 중심의 한국의료 체험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제 의료 코디네이션센터도 설립된다.

현재 3개 시도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을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운영도 검토중이다.

인력 양성 부문에선 서울의 IT 기술·연구인력, 경기의 IT 제조기술, 인천의 물류유통 등 지역별 장점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제안됐다. 이른바 'IT 융복합화'를 위한 '수도권 지능형 메카트로닉스(IMT)산업 기술인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다.

의료기술 상품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운영 검토

먼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IMT, 경기 IMT기업협의체(김포, 부천, 시흥, 안산), 인천 송도테크노파크 IMT 기업협의체를 꾸려 운영한 뒤 최종적으로 'IMT산업협회'를 설립해 수도권 IMT 광역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의 경우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광역단체 주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한편 환경과 자원이용 효율화 부문도 수도권광역경제개발위원회의 신규 사업 추진대상이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된 한강 주요 지천의 수질 개선과 하천변 정비가 우선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안양천과 탄천, 중랑천 등이 수질 개선 대상으로 지정됐다.

2006년부터 실시된 수도권 광역교통환승시설 구축 사업도 추가 구역을 지정해 새로이 추진된다. 서울에선 구파발, 도봉산 등 9개소에서, 인천은 검단, 청라 등 5개소, 경기는 화서역, 고촌역, 백마역 등 30개소에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승센터가 건설된다. G

글 · 유재영 기자

'과학 수도' 충청 21세기를 책임진다

충청권 광역발전계획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심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충청권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인근 대전, 오창, 오송, 천안, 아산 등과 연계해 IT·의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1 하이닉스반도체는 2006년 세계 최초로 60나노급 최고속 DDR2(Double Data Rate 2·DDR SD램을 고속화한 SD램의 규격) 모듈 개발에 성공했고,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24단 낸드플래시(Nand Flash·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MCP(다중 칩 패키지)를 개발했다. 2008년에는 세계 최초 3중셀 기술 기반의 32기가바이트 낸드플래시 메모리, 세계 최초 2기가바이트 고용량 모바일 D램, 세계 최초 8단 적층 낸드플래시를 개발했다.

이처럼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고성능 저전력 무선통신기기용 SSD(Solid State Drive·하드디스크를 대체할 PC용 저장장치) 개발에 나섰다. 고성능 저전력 무선통신기기용 SSD 개발은 지난해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의 정보통신 분야 선도사업 세부 과제로 선정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이번 과제는 SSD 핵심 기술인 낸드플래시와 제어 운용을 담당하는 컨트롤러를 동시에 개발해 상용화하는 것이다.

총괄 책임자인 홍성희 그룹장은 "SSD는 메모리반도체 기술과 시스템반도체 기술이 포함된 응용제품으로, 처리속도가 빠르고 충격에 강할 뿐 아니라 소음과 발열이 적어 넷북을 비롯한 모바일기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품 자체가 부품모듈 형태로 적용되는 제조업과 메모리셀 생산 확장을 위한 반도체장비 제조업의 파생효과까지 감안하면 매출과 고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과제 대부분이 충북 청주사업장에서 이뤄지므로 충청광역경제권의 매출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닉스는 청주공장의 낸드플래시 라인 증설에 맞춰 새 장비를 도입했거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2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자리한 바이오톡스텍은 국내 최고의 비임상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전문기업이다. 신약 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포나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일을 한다.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GLP(Good Laboratory Practice·식품, 의약품,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독성실험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인력, 장비, 방법 등의 체계적 관리규정) 22개 전 항목 인증을 받았고,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독성시험 수주를 받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의 의약·바이오산업 분야 세부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양막줄기세포의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막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 생산하고 임상 수준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완료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생물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 회사 강종구 대표는 "이번 과제가 성공하면 양막에서 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분리해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약물 개발과 독성물질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와 난치성 질병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또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자본 부족으로 사장되는 후보물질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신약 후보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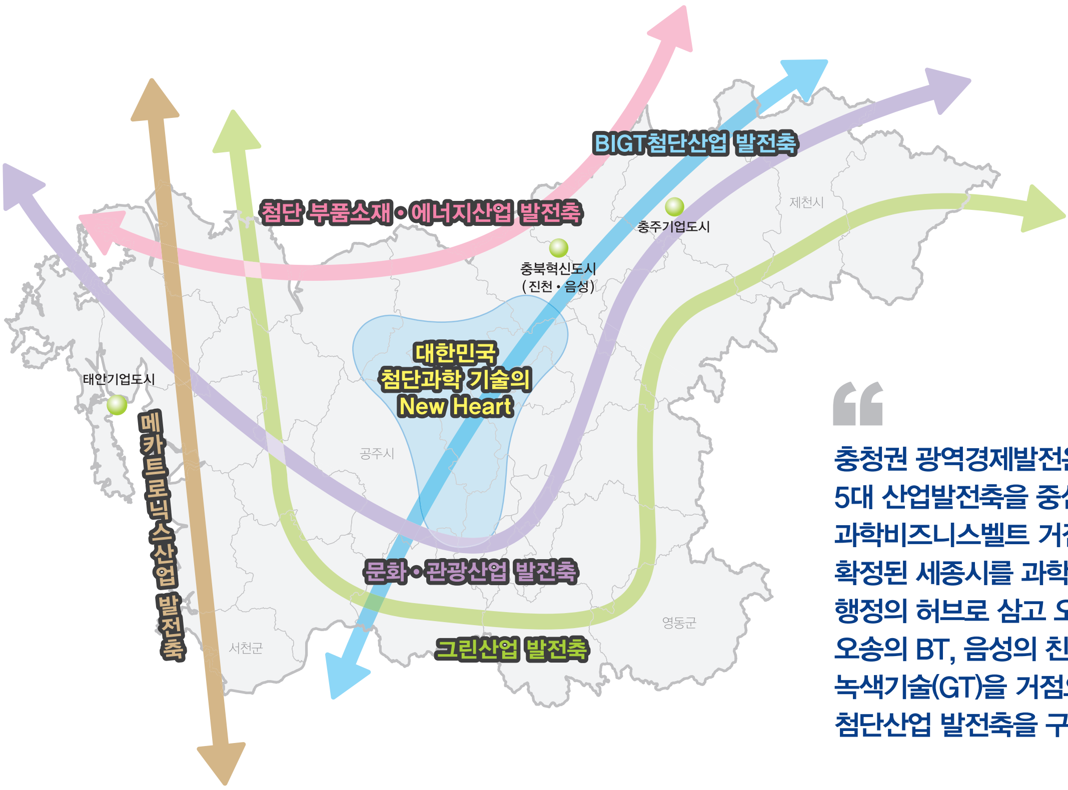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는 충청권 선도사업인 뉴 IT산업 분야 세부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새로운 메모리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충청권

충청권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뉴(New) 정보기술(IT)산업과 의약·바이오산업이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착실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충청광역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지난해 뉴 IT와 의약·바이오산업에서 각각 2개씩 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확정했다.

뉴 IT산업 분야 프로젝트인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무선통신 단말기 가운데 충청권의 강점인 디스플레이, 정보저장부품, 통신용부품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12년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전체 수출 중에서 충청권이 4억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10개의 글로벌 중견기업을 만든다는 목표를 갖



>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은 1개의 허브와 5대 산업발전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확정된 세종시를 과학, 산업, 문화, 행정의 허브로 삼고 오창의 IT, 오송의 BT, 음성의 친환경 녹색기술(GT)을 거점으로 BIGT 첨단산업 발전축을 구성한다.

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4백50억원을 투자해 하이닉스반도체의 '고성능 저전력 무선통신기기용 SSD 개발'을 비롯해 1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뉴 IT산업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IT 기반 그린반도체산업 성장거점화 사업'에는 4백8억원이 투입된다. 실리콘 솔라셀 및 모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를 유망상품으로, 한국철강의 '나노구조 및 밴드갭 엔지니어링에 의한 초고효율 박막 실리콘 태양광 모듈 개발' 등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광역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12년 에너지반도체와 태양전지 제조장비 및 셀과 모듈에서 5억5천만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추진

충청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오송·오창 생명과학단지 등 제약산업 육성 기반이 매우 우수하다.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이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의약·바이오산업 프로젝트로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과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은 글로벌 신약 개발 또는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세계 신약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생물의약품, 첨단 의료소재를 유망상품으로 선정하고, 동국제약의 '새로운 제형의 글로벌 서방형 펩타이드 항암제 개발' 등 16개 세부 과제에 5백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까지 신약 개발로 3천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0개의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바이오톡스텍의 '난치성 질환 제어를 위한 양막 유래 세포치료제 실용화기술 개발' 등 15개 세부 과제에 4백4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은 과제 종료 후 2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의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을 총괄하는 송석길 프로젝트 디렉터는 "세계시장에 진출할 고부가 신약개발과 글로벌 기업 육성을 지원해 미래 먹을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의 비전은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심장'이 되는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천안·안산 IT산업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IT와 생명기술(BT)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은 1개의 허브와 5대 산업발전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확정된 세종시를 과학, 산업, 문화, 행정의 허브로 삼고 북부지역의 거점산업단지를 연계한 첨단 부품소재·에너지산업 발전축, 남부지역의 지역특화자원 혁신 거점을 연계한 그린산업 발전축, 해양·백제·과학·중원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발전축, 서해안 신산업벨트지역의 자동차, 기계를 연계한 메카트로닉스 산업축, 오창의 IT, 오송의 BT, 음성의 친환경 녹색기술(GT)을 거점으로 BIGT 첨단산업 발전축을 구성한다.

또한 충청권 발전 거점으로 세종시에는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융복합센터 등이 들어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첨단과학의 요람이 된다. 또 청주와 오송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천안과 아산을 연계한 첨단과학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충청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이 풍부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과 물류망도 크게 늘어난다. 충남 홍성군 화양과 경기 안산시 원시를 잇는 서해안 복선전철,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서해대교 대체노선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충북 음성과 제천 사이의 동서 4축 고속도로, 대전~세종시~오송역~청주공항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의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충남 논산~계룡~대전~오송~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전철, 대전과 오송 간 도시철도, 충청선 산업철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대덕특구 물류단지 등 광역 연계사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충청권 광역경제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전광역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대전, 충남북 3개 시도 간 '광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내의 시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 평가' 등을 맡는다.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심장… 첨단산업 발전축 구성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현재 10개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연계사업 중 광역 사업은 △전략산업 응용 패키지산업 육성사업 △IT기반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태양전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 증대장치 모듈 연구 개발 △광역 u-Life Care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금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u-Life 서비스 구축 사업 △의료기기 R&D 첨단화사업 △충청 감성 IC/W에 의한 뉴 IT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이다. 또 초광역 사업은 △비금속광물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3D 가상세계 기반의 e러닝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뉴 IT부품 및 부품 산업용 금형·열처리 기술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10개 연계협력 사업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최종 선정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더 보완해 내년도 사업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G

글·이혜련 기자

권오창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교통·물류망 확충해 광역연계사업 추진"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64) 사무총장은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 국토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국토개발 전문가. 전국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 권 사무총장은 "과거 정책은 시도별 균형정책에 치우쳐 중복투자나 지역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적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충청광역경제권의 장점은.

충청권은 삼한시대부터 동일한 역사문화권을 형성해 행정구역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공간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 수도권에 인접한 데다 국토의 한가운데 위치해 전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탁월한 입지 조건을 구비했다. 당진항, 청주국제공항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대전에는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미래 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국내 중심지가 되고 있고, 충남도는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LCD 등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집적지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또 서해안을 낀 대중국 수출 교두보와 서해안 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친환경 녹색기술(GT) 등 차세대 기술과 풍부한 산업기반시설, 우수한 인적자원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화된 산업생산 시스템은 충청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과 충남·북의 생산 기능을 연계해 나간다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충청권의 선도사업인 뉴 IT와 의약·바이오산업은 2012년까지 30억 달러의 수출과 4천2백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광역경제발전 선도사업의 예상 수출액 60억 달러의 절반이 충청권에서 창출되는 셈이다.

광역경제발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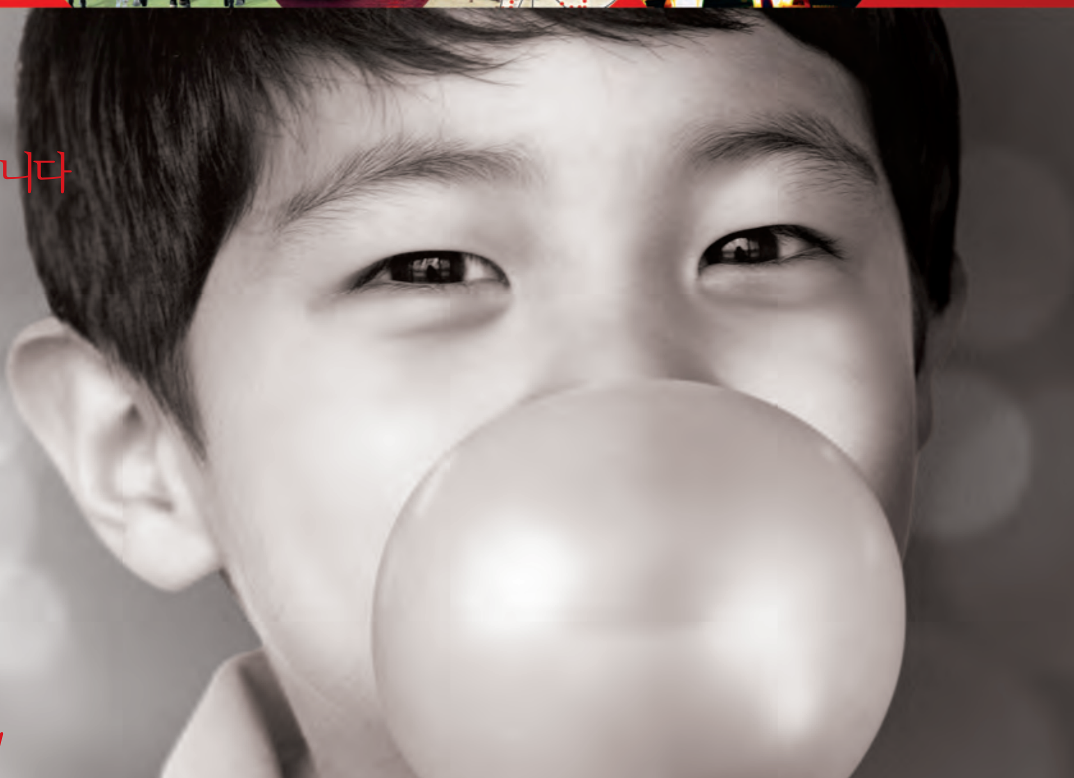
현재 광역권경제발전위원회는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만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배분·평가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또 광역권경제발전위원회, 선도산업지원단, 인재양성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상호연계성이 조정, 강화된다면 사업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어디로?

오서유! 즐겨유!
대충청2010







상상력이 넘치는 대충청에서
내 아이의 꿈이 한 뼘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경험하는
역사와 자연, 미래와 과학의 글로벌 축제
더 깊은 휴식과 더 넓은 감동을 드리는
환상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전, 충북, 충남이 함께 펼쳐가는
전통과 과학의 신나는 네트워크
대충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행복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한걸음 거리!

2010 대충청방문의 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www.2010visit.org
대충청방문의 해 검색



'전통문화+지식산업' 신성장지대로

대경(대구·경북)광역경제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의 중심지대'를 목표로 광역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풍부한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정보기술(IT)산업의 중심지라는 이점을 살려 IT융복합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시도 간은 물론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협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자리한 태양전지 생산업체 미리넷솔라. 국내 최초로 연간 90메가와트 태양전지 양산체제를 갖춘 회사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2008년 1월부터 대구 공장을 가동했다. 지난해 이 회사는 대구경북광역경제권(대경권)의 선도산업인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태양전지 핵심소재 개발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덕분에 2011년까지 총 55억여 원의 정부 및 민간 출연을 받게 됐다.

현재 표면에 레이저 처리를 한 '고효율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양산 기술을 개발 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 몰려든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태양전지 생산라인도 풀가동하고 있다. 올해는 생산라인과 제조설비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미리넷솔라는 지난 3월 3~5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태양광 엑스포 2010'에도 참가해 일본의 샤프, 중국의 잉리, 대만의 모테크 등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태양전지 생산업체들과 비즈니스 경쟁을 펼쳤다. 이상철 미리넷솔라 회장은 "태양전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태양광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대구·경북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은 국내 태양전지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경북 경산에 있는 메가젠임플란트도 대경권의 또 다른 선도산업인 정보기술(IT)융복합 의료기기 분야에서 신개념 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2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5개의 임플란트 시스템과 1천4백여 종의 관련 제품을 개발해 해외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임플란트 전문기업이다. 2006년 세계 최초로 와이드 임플란트 시스템인 레스큐(Rescue) 임플란트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얻었다.

2008년 말에는 새로운 임플란트 기술과 표면처리법을 개발한 공로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세대 일류상품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과 유럽적합성(CE) 인증마크를 따낸 것은 물론 치과 임플란트 관련 국내 특허 20건을 등록했고, 국제 특허도 13건이나 출원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1백4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생체융합형 차세대 치과용 임플란트 개발)의 총괄기관에 선정되는 등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 박광범 대표는 "광역 선도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메가젠임플란트는 순수한 자체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동아DB

미리넷솔라는 지난해 대경권 선도산업인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태양전지 핵심소재 개발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회사의 대구공장 생산라인.



대경권

대경권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이끌 선도산업으로 그린에너지산업과 IT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은 대경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또 영상진단기기, 신체기능 회복기기, 모바일 헬스케어기기 등을 개발하는 의료기기산업과 제조지원 서비스로봇, 전문 서비스로봇 등을 개발하는 실용 로봇산업을 아우르는 IT융복합산업은 동북아 거점이 될 세계적 IT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경권의 모바일 단말기 세계시장 점유율은 24퍼센트로 세계 2위이며, 일부 부품소재 기업의 입지 선호도도 높다고 한다. 또 첨단지식산업과 R&D 인프라도 풍부하다. 대경권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그린에너지산업 분야의 24개 업체와 IT융복합산업 분야의 23개 업체가 지난해 대경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경권 선도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이러한 선도산업 육성 사업체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국비로 그린에너지산업에 1백72억원, IT융복합산업에 1백48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0퍼센트씩 늘릴 예정이다.

윤상한 지원단장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의 70퍼센트를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선도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출액 10억5천만 달러 달성과 4천5백9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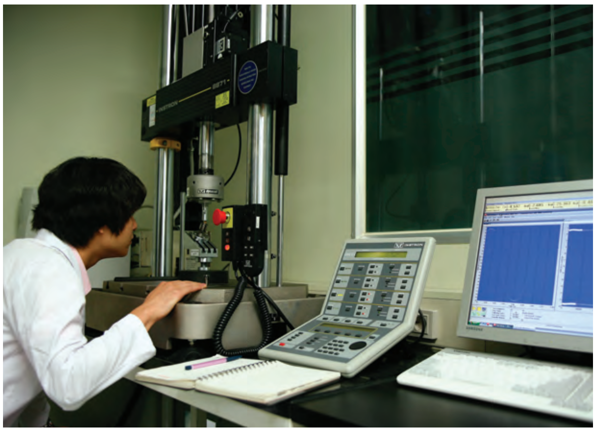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선도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태양광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 △IT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IT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 등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발전위가 추진 중인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일부다.

"선도산업 추진하면 수출액 10억5천만 달러"

발전계획은 낙동강축과 동해안축 등 2대 초광역축과 중추도시권, 첨단산업도시권, 생태·문화권, 과학·에너지산업권 등 4대 하위 경제권을 설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했다. 또한 권역을 생태환경축, 문화경제축, 지식기반축, 해양연계축 등 4개 발전축으로 나눠 '녹색성장 중심지'로의 도약을 꾀한다. 먼저 생태환경축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에코 앤 비즈(Eco & Biz) 벨트'를, 문화경제축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바이오벨트를, 지식기반축은 구미, 대구, 포항을 연계한 하이테크·융합벨트를, 해양연계축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에너지·과학벨트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위는 선도산업 추진 외에도 △전략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

동아DB



대경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체 중 하나인 메가젠임플란트의 연구원이 새로 개발한 임플란트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 이용 효율화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전략사업은 메카트로닉스(기계와 전자의 융합기술)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건강기능소재산업 등을 지역별로 특화해 대경권을 IT융복합형 R&D 클러스터의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양성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역 대학의 기능·권역별 특성화 유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 진흥은 첨단 과학기술 혁신역량 선도, 과학·기술·산업 간의 융합화 및 연계화 등에 중점을 뒀다. 또 발전거점 육성은 대구, 구미, 포항, 안동 등 중추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전위는 교통 중추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망과 균형발전을 위한 물류망도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IT융복합형 R&D 클러스터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

이러한 발전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도 한창 진행 중이다. 동서 6축 간선도로와 남북 7축 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 발전위는 안동, 경주 등 전통문화가 보존된 지역을 유교, 신라, 가야 3대 문화권으로 지정하고 관광산업을 대경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남권 광역 모바일벨트(구미-대구-마산·창원) 조성 △내륙 첨단지식산업벨트(대구-광주-대전) 조성 △영남권 광역 과학기술벨트(대구-포항·경주-울산) 조성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경북-충북-강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동해안 광역권 발전 △낙동강 살리기 등 7개 사업이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경권이 꿈꾸는 미래 청사진은 한마디로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의 중심지대'다. G

글 · 김지영 기자

박광길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상생발전 도모"



지난해 8월 출범한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광역권 구축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발전위 자체도 7개 광역권 중 가장 먼저 닻을 올렸을 뿐 아니라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광역화'를 추진해온 터라 광역경제권 발전정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위 박광길 사무총장은 "대구는 소비를, 도심화가 필요한 경북은 생산과 투자를 담당해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에 대한 지역 내 분위기는 어떤가.

4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며 광역화를 추진해왔기에 시도 간 경제통합과 공동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 다만 시도의 협력수준이 정책 공조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아쉬워한다. 세계화, 지역화의 진전 속에 국가나 지역 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책 공조를 넘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이러한 경제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발전위 사무국의 기능 강화와 협력 증대가 필요하다.

대경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면.

정보기술(IT)산업의 중심지라는 점, 메카트로닉스와 환경기술(ET)산업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경권은 구미를 중심으로 IT산업, 특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산업이 발달했다. 또 포항은 1차 금속산업, 대구, 영천, 경주는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했다. 대구모바일융합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기업지원기관, 교육기관도 많다.

발전위에서는 현재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나.

창의적인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광역 연계협력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물포럼 유치, 원자력·과학산업벨트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국의 빈하이 신구, 일본의 긴키권(관서지방) 등과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타 광역권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광역사업과 지역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적화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린에너지, IT융복합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 간 협력 지원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다른 광역권과의 협력, 해외 교류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World Firefighters Games
2010 DAEGU KOREA

뜨거운열정! 따뜻한 우정!



파일로
Filro

2010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공식캐릭터 **"파일로"**

2010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 기 간 : 2010. 8. 21 ~ 8. 29 (9일간)
- 규 모 : 60개국 10,000여 명
- 경기종목 : 75종목

www.wfg2010.com

Colorful DAEGU NEMA

낚시(바다/민물) 수중인명구조 양궁 팔씨름 배드민턴 바둑 야구 농구(5/3) 당구(스누커/캐롬) 당구(포켓) 보디빌딩 볼링(10핀) 복싱 물통릴레이 체스 인공암벽등반(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사이클(T.T./MTB/도로) 다트 드래곤보트 소방관요리 소방차운전 프리테니스 골프 말발굽던지기 인라인스케이트 유도 가라데 카약 족구 론볼 역도(파워리프팅) 마라톤(풀/하프/10km/5km) 머스터 오리엔티어링 페인트볼 포커 조정(실내/강) 럭비(7) 요트 사격(트랩/스키트/아메리칸트랩/공기총) 축구(11/6) 소프트볼 스쿼시 계단오르기 씨름 수영(야외/실내/핀) 탁구 태권도 테니스 최강소방관경기 육상 보물사냥 트라이애슬론 줄다리기 배구(해변/실내) 수구 수상스키 윈드서핑 레슬링

Designed by brainkiss

태양과 바람이 '서해 경제 시대' 이끈다

호남광역경제권은 선도산업으로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 등 '녹색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해안선이 길고 일조량이 많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산업기반을 연계해 향후 '환(環)황해경제권'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게 호남권의 청사진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전남 영암군 삼호면 대불산업공단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에서 DMS의 대규모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DMS는 풍력발전기 공장부지 4만7천7백여 제곱미터에 생산공장 2동과 사옥 1동을 오는 6월 말 완공한다. 이후 풍력발전기 시험가동과 국제인증을 거쳐 양산 체제를 갖추면 첫해인 2013년에 DMS가 풍력발전기로 거둬들일 예상 연 매출액은 최소 3천5백억~4천억원. 연 매출액은 그 후 계속 증가해 올해 DMS의 매출 예상액 7천억원에 버금가는 새로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5년 이내 8백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세계시장 35조원 규모인 풍력발전설비 사업은 DMS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선택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올해로 창사 11년을 맞은 DMS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세정 분야에서 5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 LCD 텔레비전 4대 중 3대는 DMS의 장비를 사용할 만큼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DMS가 차세대 녹색성장 분야를 모색하던 중 호남권에 풍력발전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천혜의 입지조건 때문이라고 최만수 이사는 말한다.

"서해안은 풍력에너지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지녔습니다. 동남해안에 비해 대륙붕이 길게 이어지고 수심이 얕아서 풍력발전기 타워(축)를 설치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또 북서풍의 세기가 강해 발전 동력을 얻는 데도 유리합니다."

자연조건뿐 아니다. 최 이사는 대불산업공단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 등 조선소와 부품 협력업체가 밀집한 것도 우수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풍력발전기는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 등 대부분 강철 부품을 조립해 만듭니다. 이런 부품들은 조선소에서 쓰는 부품과 유사해요. 발전기는 DMS가 생산하지만, 다른 부품들은 협력업체에서 받아서 전체 시스템을 조립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갖춘 대불공단을 선택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내수도 내수지만 해외 수출을 타진하고 있으니 목포항과 가까운 것도 이점이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현재 제주 김녕에서 시험가동하고 있는 국산 풍력발전기(사진)의 국제인증을 받는 대로 서해안 해상풍력단지에 진출할 예정이다.

호남권

풍력 에너지는 크게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뉜다. 호남광역경제권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바다에서 풍력발전기를 돌리는 해상풍력이다.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대관령과 제주도 등에 소규모 육상풍력단지가 조성돼 있고, 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 누에섬에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섰다.

호남광역경제권은 2012년까지 전남 신안, 완도, 영광, 보성 등을 낀 서해안 일대에 1백 메가와트급(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0대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DMS처럼 풍력발전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매력적이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박양주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대용량 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환경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천혜의 조건 살린 풍력발전… "세계 4대 시장 성장할 것"

두산중공업도 서해안 해상풍력단지에 합류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김녕 육상실증연구단지에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3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국제규격 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는 대로 서해안 해상풍력단지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이경우 책임연구원은 광역경제권 단위의 정책 지원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한다.

"풍력발전기를 만들어도 시험가동을 할 단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와 호남광역경제권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병행 추진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죠.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시장 개척까지 광역경제권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니 사업 진행이 수월합니다."

호남광역경제권은 풍력산업 육성을 통해 2011년 세계시장 점유율 2퍼센트, 2020년 10퍼센트, 2030년 20퍼센트를 달성해 세계 4대 풍력시장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풍력은 호남광역경제권이 설정한 4가지 신성장 선도산업 중 하나다. 호남광역권 선도산업지원단은 태양광, 풍력, 광융합, 자동차산업을 각각 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선도산



동아DB

호남권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에 유리하다. 전남 광양제철소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최영기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새만금을 '한국의 아마존'으로"



호남광역경제권은 지난해 10월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개년 광역경제권 계획 수립 및 연계사업 발굴, 사업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영기(57)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호남권은 산업기반이 다른 광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지만, 친환경 신성장산업인 녹색산업을 활성화해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광역경제권의 발전 잠재력은.

호남권 면적은 전국 대비 21퍼센트이지만 현재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1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총생산액, 제조업 고용 등 경제 지표면에서 강원권, 제주권을 제외하면 5개 광역권 중 최하위다. 그러나 호남권만의 장점을 살릴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다.

자연환경 면에서 전국 최대 일조량, 좋은 해상풍력 조건과 높은 조수차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지역별로 광주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주력하고, 전북은 새만금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한국의 아마존'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은.

호남권 광역위는 3개 시도(광주, 전남, 전북)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첫째 호남광역경제권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둘째 지역의 공동발전목표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발전전략 구상, 셋째 호남권내 3개 시도 및 타광역권과 연계협력 사업 발굴, 넷째 재원 분담방안 수립, 다섯째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광역위는 시도발전연구원, 선도산업 지원단, 인력양성센터 등 27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권의 각 지역 특성화 전략과 연계 계획은.

호남권을 6개 권역, 4개 축, 4개 벨트로 나눠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6개 권역은 새만금권(세계경제자유무역거점), 전주광역도시권(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허브), 광주대도시권(중추도시, 문화와 연구개발의 허브), 지덕권(내륙녹색성장거점), 광양만 광역도시권(동북아 물류허브), 목포광역도시권(대중국 교류거점)이다.

각 권역은 지식첨단사업축, 전통기간산업축, 녹색에너지산업축, 녹색산업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해 남해안과 서해안에 문화관광·녹색벨트, 신산업·관광벨트, 수변생태관광벨트, 내륙청정휴양레저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호남권은 '문화로 생동하는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려시대 청자촌 조성 사업, 아시아문학관 건립, 영산강과 섬진강 주변 저탄소 문화벨트 조성, 갯벌과 염전 세계자연유산 등록 및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업에서 총 67개 과제(태양광 18개, 풍력 11개, 광융합 20개, 하이브리드자동차 18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과제가 끝나는 2011년에는 수출 12억 달러, 고용 창출 3천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태양광 분야에선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겨냥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로 세계 2위에 오른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2007~2008년에 1조5천억원을 들여 군산 제1, 2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오는 연말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군산 제3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넥솔론, 솔라월드코리아, 심포니에너지 등도 호남권 태양광산업 클러스터에 합류했으며, 올해 안에 금호전기가 광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선도산업지원단의 태양광 담당 신귀수 프로젝트 디렉터는 "2012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7퍼센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에는 5백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의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호남권 업체들이 근거리용, 농업용, 대형버스 등 전기자동차 5종을 개발해 2012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게 목표다. 호남권에는 현재 현대상용차, CT&T, 탑알앤디, 파루 등 8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농업용 자동차업체, 전지 핵심 부품회사 등 50여 업체가 있고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전기자동차를 수출하는 CT&T는 호남권의 입지 여건을 보고 3월 16일 전남 영광에 전기자동차 조립공장을 착공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업체인 시그넷시스템도 경기 일산에서 전북 익산으로 본사를 통째로 이전하기로 하는 등 호남권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의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500억 투입… 국내 최대 전기車 클러스터 조성

LED조명 등 친환경 광융합 부품·소재산업도 호남권의 주력 산업이다. 현재 호남권 관련 기업은 연매출 4천억원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3퍼센트대를 유지하고 있다. 호남광역경제권은 광융합시장을 2012년 이후 연매출 1조2천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10퍼센트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문화예술과 해양·생태관광 육성, 대학 특성화 및 산학협력 체계 구축, 광역권 간 교통물류망 확충 등의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로 생동하는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려시대 청자촌 조성 사업, 아시아문학관 건립, 영산강과 섬진강 주변 저탄소 문화벨트 조성, 갯벌과 염전 세계자연유산 등록 및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권뿐 아니라 타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인프라 건설도 활발하다. 광주~대구 철도, 88고속도로 확장, 새만금과 전주·대구·포항을 잇는 호대고속국도는 2008~2009년에 착공했으며 전주~김천 철도, 익산~군산 고속국도, 광양항~부산항 해상셔틀운송 시스템 등은 올해 착공해 2011~202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는 1백61조3천6백52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선도산업 육성 2천54억원,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1조6천1백80억원,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5천2백59억원, 발전거점 육성 93조4천9백43억원, 교통 및 물류망 확충 46조7천7백73억원, 문화관광 육성 5조4천32억원,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13조3천4백11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호남광역경제권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만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FORMULA1 WORLD CHAMPIONSHIP KOREA GRANDPRIX

2010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년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환태평양의 중심지 전남이 F1대회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관광허브로 거듭납니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11개팀 22명의 드라이버가 매년 17~18개국을 순회하며 레이스를 펼치며, 연평균 관람객 20만명, 전세계 184개국 6억명이 시청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경주대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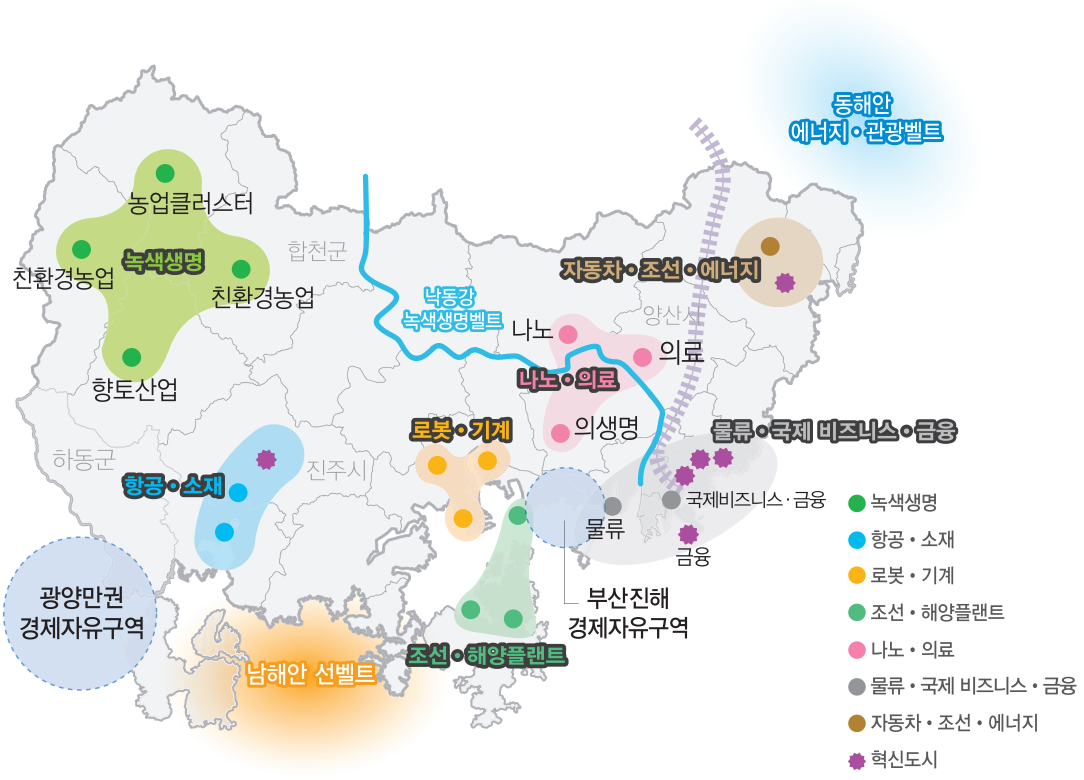
대 회 명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시 기	2010 ~ 2016년(7년간)
장 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
주요시설	트랙, 프레스센터, 관람석 등
개최효과	국가 홍보효과 및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

-대회 1회 개최당 관람객 20만명,
고용창출 2,500명(연평균)
경제파급효과 2,500억원 예상(연평균)



환태평양 최고 물류 중심지 '예약'

부산, 울산, 경남을 묶는 동남권은 국내 최대의 기간산업지.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산업 등이 특화돼 있고 바다와 가까워 환태평양시대 세계 최고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주목받을 만한 요건을 갖췄다.



#1 자동차 샤시부품 전문업체인 세종공업은 울산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 1976년 설립된 이래 중국, 러시아 등 해외 7개 지역에 지사를 만들어 알찬 중견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공업은 탁월한 기술력으로 내연기관용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들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의 트렌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그린카)로 전환하면서 그간 만들어오던 자동차 부품들도 이에 맞는 쪽으로 개발해야 했다.

그린카의 엔진에 해당하는 연료전지(스택) 운전을 위한 핵심부품인 '스택운전 주변장치'(BOP)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세종공업은 지난해 10월 동남권 선도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개발에 물꼬가 트였다. 1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것은 물론 동남권 지역의 다른 중소업체들과 협력해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 세종공업 서호철 부장은 "연구개발이 결실을 보게 될 2012년에는 그린카 1천대에 장착할 수 있는 BOP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 천연가스 수요량이 늘어감에 따라 LNG선에 필요한 해양기자재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 공장을 둔 삼성테크윈은 이런 부유식 LNG 생산-저장-하역선(LNG-FPSO) 등에 필요한 가스 압축기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다.

지난해 10월 동남권 선도과제인 글로벌 해양플랜트 허브구축 관련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LNG-FPSO용 연료가스압축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

가스압축기의 핵심 부품은 부산에 있는 선박용 열 냉각기 전문업체인 동화엔텍, 밸브 전문업체인 마운틴 한라 콘트롤밸브 외 20여개의 국내 중소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아 해양기자재 국산화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테크윈 이상명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전문 중소업체가 참여하여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조선사 및 선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였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지에서 보듯 해안을 낀 동남권이 발전해온 것처럼 우리나라 동남권 역시 세계적 거점지역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그 중심축으로, '5+2 광역경제권'의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2013년까지 심의 의결하게 된다.

동남권의 비전은 '환태평양시대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 이에 따라 해양, 내륙, 낙동강 등 3개 광역 발전축을 중심으로 부산 대도시권, 진해만 환상도시권, 내륙성장 도시권, 서북부 성장 촉진권 등 6개 지역경제권을 만든다.

기존 지역경제권이 지닌 특성에 따라 부산 대도시권은 물류 및 국제 비즈니스·금융 허브로, 울산 대도시권은 자동차와 조선 등 기반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진해만 환상도시권은 로봇·기계·해양플랜트산업을 주축으로 유치하며, 사천만 환상도시권은 항공우주·소재산업, 내륙성장 도시권은 나노·의료·생명산업, 동남권 서북부 지역은 녹색생명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남권 곳곳에는 기업과 기관이 한 지역에서 만나는 고부가 클러스터가 형성돼 우리나라 최대의 융복합 기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산업 육성,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초(超)국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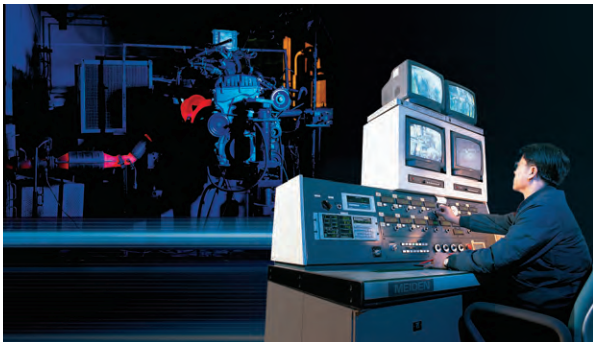
거점도시와 중소도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추진

동남광역경제권의 핵심은 선도산업 육성이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추진될 이 사업은 수송기계 분야에서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과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융합부품소재 분야에서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과 수송기계 안전편의 융합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졌다.

우선 주목받고 있는 것은 수송기계 분야다. 동남권 자동차산업은 전국 사업체 수의 30.5퍼센트, 생산액의 33.9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국가적인 전략산업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그린카 오토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시작된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에는 2011년까지 3백79억원이 투자돼 차체 개발, 친환경 내외장품 개발 등에 나선다.

동남권 선도산업지원단 그린카프로젝트실의 노상호 박사는 "현재 50여 개 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는 그린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간 3천억원의 매출 증가와 1천7백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선도산업인 융합부품소재 분야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와 로봇산업이 중심이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순정 연구원은 "선도산업이 궤도에 오르는 3년 후 수출 10억 달러, 고용 창출 5천명 정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공업 제공

동남권은 환태평양시대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등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진은 수송기계(그린카) 관련 선도산업 주관기관으로 뽑힌 세종공업의 연구소.

> **동남권 곳곳에는 기업과 기관이 한 지역에서 만나는 고부가 클러스터가 형성돼 우리나라 최대의 융복합 기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구축, 超(超)국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인재 육성도 주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 선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4개 대학에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낸다. 한국해양대, 창원대, 부산대, 부경대 등이 기업 밀착형 교육을 통해 교육, 연구, 취업을 하나로 잇는 작업에 나선다.

동남권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다. 산업연구원 장재홍 지역정책팀장은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교통환경이 구축돼야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동남권 8백만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거제~마산 도로(이순신 대교)가 2017년 완공되면 이들 두 지역과 부산을 잇는 트라이앵글 벨트가 만들어져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전망. 또한 울산, 양산, 김해 등 동남권 도시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광역교통환승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를 거친 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동남권을 대표하는 발전 거점지역을 육성해 클러스터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국제산업 물류도시,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경남 로봇시티 등이 그것. 더불어 동남권을 초광역경제권으로 키우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옥우석 사무총장은 "올해는 일본 규슈권과의 협력 모델을 도출해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의료관광’이 강원도의 힘

5+2 광역경제권 중 특별경제권에 해당하는 강원권은 ‘생명’과 ‘건강’을 지역발전 키워드로 삼았다.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춘천, 원주, 강릉 3대 거점도시를 토대로 강원 전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동북아 녹색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려는 꿈이다.

강원권

강원 춘천시가 신흥 바이오제약산업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춘천으로 이전한 바이오제약 기업은 30여 개에 이른다. 올해는 팜스웰바이오와 팜스젠 등 3개 회사가 춘천시와 입주계약을 맺고 거두농공단지에 조성된 지텍빌리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지텍빌리지에는 현재 28개 기업의 근로자 3천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춘천에는 1백20여 개의 바이오제약 기업이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미국 바텔연구소와 스크립스 한국법인을 비롯해 한화제약, 일화, 한국파비스바이오텍, 한국코러스제약, 유유제약연구소, 씨트리 등이 본사나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조성된 동화첨단의료기기 전용공단에는 2005년 환자감시장치 제조기업 메디아나를 시작으로 엑스레이진단장치 제조기업 리스템 등 국내 굴지의 28개 의료기기 업체가 입주해 있다. 동화첨단의료기기 전용공단은 원주 의료기기 생산량의 8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원주시에는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단지가 동화의료기기 전용공단 외에도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강릉시는 대전동 일대에 자리한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와 신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벤처기업 27개 업체 등 총 55개 업체로 이 가운데 32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 중이다.

춘천 바이오·원주 의료기기·강릉 신소재 거점도시 육성

또한 해양심층수와 다시마 알긴산을 이용한 전두부 생산업체 쏘이원 등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큰 업체들이 4월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올 상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 과학산업단지에는 현재 6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천2백여 명이 종사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강원도는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기 전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3대 거점도시를 축으로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춘천권의 바이오,


동아DB

강릉시는 대전동 일대에 자리한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와 신소재산업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원주권의 의료기기, 강릉권의 신소재·방재 및 관광산업이 그것. 이러한 산업은 강원권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산업의 기반이다.

또한 3대 거점도시는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중심축을 이룬다. 강원권을 동북아 녹색성장의 새로운 발전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권역을 수도권 배후 신기업축, 동해안 발전축, 백두대간 생태축, 접경지역 한민족 평화축, 남부권 고원관광축 등 5대 축으로 구분하고 각 축별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원, 춘천, 원주, 제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배후 신기업축에는 수도권과 연계된 신산업 거점도시, 의료특구도시 등 다양한 지역발전 거점을 조성한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발전축에는 환동해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도시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철원과 고성을 잇는 접경지역 한민족 평화축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생명지대(PLZ)의 광역관광 개발을 위한 생태지대로 만들어나간다. 태백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고원관광축엔 탄광지 생활현장 복원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된 고원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추진한다.

"삼수는 없다" 밴쿠버 열기 2018 평창으로

평창, 홍천, 정선이 속한 백두대간 생태축에는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건설해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활성화한다.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이자 동계스포츠벨트 지역인 평창은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과 연계해 '역세권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한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밴쿠버에 3표 차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선 러시아 소치에 4표 차로 분패한 평창은 "삼수는 없다"는 다부진 각오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나섰다.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은 물론,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에서도 고루 세계 정상에 오르며 동계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줘 대회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12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융합·의료관광 선도산업 △지역 전략 진흥사업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4대 사회간접자본(SOC) 선도 프로젝트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방침이다.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지역발전담당관실 조규영 주무관은 "주요 성과지표에 따르면 강원권 인구는 현재 1백50만명에서 2015년 1백80만명으로 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008년 이후 연평균 4.79퍼센트 성장해 2013년에는 27조2천7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이근식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제2영동고속도로 등 SOC 조기 완공"


동아DB

지난해 8월 강원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출범했다. 발전위는 우선 선도사업인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광역 연계협력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전위의 이근식 사무총장은 "출범 2년차를 맞은 만큼 본격적인 성과를 낼 때"라며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에 거는 도민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에 대한 도내 분위기는.
도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대비 3퍼센트 수준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편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4대 SOC 선도 프로젝트의 조기 완공, 선도산업 활성화 등으로 강원권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강원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면.
그동안 원주권의 의료기기, 춘천권의 바이오, 강릉권의 신소재 · 방재 및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온 덕에 선도산업인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산업 육성이 수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강원도 면적의 81퍼센트를 차지하는 임야 등 자연환경, 접경지역(DMZ),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국토 중심지 등은 강원권만이 지닌 가치라 할 수 있다. 요즘 화두인 녹색성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강원권 광역발전계획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2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등 다른 광역권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외부 인력과 기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권의 관광자원과 의료 인프라를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본다.

다른 광역권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연계권역	사업 내용
수도권	▷경기~강원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 ▷인삼, 산양, 산삼 세계 브랜드화 ▷평화 관광로 구축 ▷바이오가스 클러스터 구축 ▷공동산업단지 조성
충청권	▷의료벨트 구축
대경 · 동남권	▷동해안권 부품 · 소재벨트 조성



동아DB

제주도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관광·레저 산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

영어가 자유롭고 외국인도 편하게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청정 바다와 이국적 풍광으로 '관광의 섬'이 된 제주도. 제조업 비중은 낮은 대신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농림어업의 비중도 비교적 높다. 취약한 산업구조로 일찍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 제주도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건설된다.

제주권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동문(同門)이 되고 싶다면? 미국이 아니라 제주도로 가라. 앨 고어 전 부통령 등 미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배출한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세인트알반스 스쿨(St. Albans School)이 제주 영어국제도시에 진출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들어서는 영어교육도시에 영미권 명문학교 유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어교육도시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의 세인트알반스 스쿨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다. 이 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제주 진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어교육도시 관계기관은 또 미국 뉴포트의 명문 남녀기숙학교 세인트조지스 스쿨(St. George's School)도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MOU 체결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JDC는 지난해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의 명문 여자기숙학교 브랭섬홀(Branksome Hall)과, 지난해 4월에는 영국의 명문 여학교 노스런던 컬리지에이트스쿨(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 MOU를 체결했다. NLCS는 1850년에 설립된 영국 최초의 여자 사립학교로, 영국 여학교 중 랭킹 1위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 유수 학교 총집합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난해 6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건설부지에서 착공된 영어교육도시는 국내 학생의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하고 아시아 지역 해외유학생을 유치할 '동북아 교육허브'로 조성됐다. 2011년 시범학교 3개교(공립 1, 사립 2)가 우선 문을 열고, 2015년까지 모두 12개교가 설립된다.

영어교육도시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명문 사립학교들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입학 자격과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에도 제한이 없다. 국어와 사회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정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학력이 인정된다.

영어교육도시가 운영되면 해외유학과 연수로 유출되는 연간 3억~5억4천만 달러의 외화가 절감되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3조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설립추진단 우옥희 장학사는 "2011년 문을 열 공립학교 운영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운영자 모집공고를 해 캐나다의 메이플립 학교법인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립학교 중에는 영국의 NLCS, 미국의 세인트알반스 스쿨이 가장 먼저 문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영어교육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2 광역경제권' 중 제주권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교육·정보기술(IT) 융합 클로스터'로 조성된다.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등 내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제주권 발전전략은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확정됐으며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6차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권 공간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중심의 관광·교육·의료축, 서귀포시 중심의 관광·레저(MICE)산업축, 제주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중심의 IT·생명공학기술(BT)산업축 등 '3대 산업발전축'으로 설정됐다.

관광·교육·의료축은 영어교육도시 안에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와 내외국인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교육·의료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MICE산업축은 외국 유명 관광호텔학교를 유치하고 컨벤션지원센터를 혁신도시에 조성한다. IT·BT산업축은 벤처종합지원센터, 제주대학교,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연계하는 IT·BT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제주권에서는 영어교육도시와 더불어 물산업과 MICE산업이 최고의 선도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산업은 화장품, 식품으로도 연결되어 건강·뷰티 생물산업이란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지금 제주권에서는 영어교육도시와 더불어 물산업과 MICE 산업이 최고의 선도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연평균 강수량 1천9백75밀리미터)이며, 지속적으로 취수 가능한 지하수량이 하루 1백76만8천 톤, 연간 6억4천5백만 톤에 이를 만큼 풍부하다. 제주 지하수는 청정지역의 화산암 대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수질과 성분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물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2007년 6월 수립했으며 2017년 약 1조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산업은 물을 활용한 화장품, 식품까지 연결되어 건강·뷰티생물산업이란 지역특화산업으로도 육성되고 있다.

제주도청 우희창 광역경제추진팀장은 "MICE산업 육성을 통해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 컨벤션 기획업을 육성하고 MICE산업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컨벤션 참가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컨퍼런스 서비스 기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물산업과 관련해선 병 입수, 음료, 주류 등 '6대 유망 상품군'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

글·박경아 기자



영어교육 특화지역인 제주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완공되면 외화 절감은 물론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자유도시란?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그 자연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약속의 땅이다.

제주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고, 2006년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행정권한을 제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도 4개 시 군'이 '1특별도 2개 행정시'로 개편됐으며 관광 외에 교육, 의료, 첨단산업도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선정됐다.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이 허용 돼 5백만 달러 이상 (외국자본 50퍼센트이상) 투자가 가능해졌고, 외국인 전용 약국을 열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허용돼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는 영산강.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4大江 살리기는 지역 살리기 경제 살리기

'단군 이래 최대의 치수사업'으로도 불리는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4대강 살리기는 국토 재창조와 지역 균형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역사적 사업이란 사실에 유념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월 22일 전남 나주시 죽산면의 영산강 2공구 죽산보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4대강 현장 점검회의' 중 이같이 말하며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으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착공한 영산강 2공구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소수력발전소 건립, 하천 환경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죽산보 구조물 기초 터파기를 시작했고, 내년 11월이면 자전거도로와 예술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명품사업'을 지향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스터플랜에 입각해 영산강뿐 아니라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곳곳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는 92개 공구의 신규 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경기 여주의 강천보(한강 33공구), 대구의 달성보(낙동강 22공구), 전남 나주의 승천보(영산강 6공구) 충남 부여의 부여보(금강 6공구) 등 1차분 42개 공구(턴키공사 16개, 일반공사 26개)는 지난해 11, 12월에 착공됐다. 2차분 50개 공구는 올 3월 이내에 모두 착공된다.

16개 보(洑) 물막이 축조 등 공사 진행 중

지난해 턴키공사로 발주된 16개의 보(洑) 설치 구간은 현재 가(假)물막이 축조와 기초 터파기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맡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지난 연말까지 모두 96개소 중 20개소가 착공됐고, 60개소가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영산강 하굿둑 사업은 올 4월 착공된다.

동아DB

환경부 소관인 수질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하수처리장과 총인처리시설 보강 등 총 1천3백27개의 수질 개선사업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 올해 1백71개, 2011년 7백70개가 준공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식 결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다.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에 시행되는 본사업 △섬진강, 북한강, 금호강, 황강 등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직접 연계사업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등 연계사업으로 구분된다.

4대강 본사업에 총 16조9천억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댐, 저수지를 제외한 사업은 2011년 완공)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며, 직접 연계사업에는 2012년까지 총 5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연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 삶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볼 때 '지역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다.

먼저 지역의 삶의 질 증진 효과를 보자. 우선 퇴적토 준설과 홍수조절지 및 강변조절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4대강의 홍수 조절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치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하도 준설과 다기능 보 설치에 따른 수량 증대,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에 따른 양호한 수질(2급수) 확보, 둔치 정비로 하천경관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4대강은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추진되는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은 전통적인 농촌문화를 발굴하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유역의 문화재 복원은 물론 다양한 현대적 문화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피해 방지와 하천경관 개선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지역문화 창달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보기술(IT)산업과 녹색산업의 진흥 효과, 그리고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다양한 IT 활용계획을 담고 있다. 하천 수위와 유량 측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피해 방지와 하천경관 개선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지역문화 창달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DB



4대강 주변은 둔치 정비와 하천경관 개선이 이뤄지면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갖춰 지역민의 여가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천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수질 오염도의 실시간 측정, 교량과 댐 같은 시설물의 실시간 감시 등에 첨단 IT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치 등 다양한 녹색산업을 배치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 4대강 살리기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8조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낙동강 유역인 경북권, 경남권의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 실제로 지난 연말까지 시행된 1차 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컨소시엄) 참여율은 평균 49.7퍼센트로, 법으로 정한 지역 업체 최소참여 비율(턴키공사 20퍼센트, 일반공사 40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공사1팀의 이창기 사무관은 "수문 제작이나 소수력발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특수공정은 지역 업체가 맡기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가 우리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고용 효과는 14만명, 나머지 22만명은 문화사업 등 연계사업에 따른 간접고용 유발 효과까지 포함한 예측"이라고 했다.

"요즘 진행되는 공정을 놓고 일부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터파기 등 기계에 의존하는 초기 공정이 끝나고 후발 공정으로 들어가면 생태환경 조성, 호안공사, 조경공사 등 사람 손에 의존하는 공사 비중이 높아져 지역 발주나 인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녹색으로 성장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환경부, 5대 선도지역 선정

지역발전에서도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는 빼놓을 수 없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개성과 목표를 갖고 특화된 발전을 추구하듯, '녹색'을 자연과 공유하며 때로는 '녹색'을 부(富)로 이용하고 '녹색'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역할도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분산돼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는 지난해 새만금, 수도권, 단양권, 창원권, 강릉권을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녹색 목표를 제시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곳, 바로 '녹색명품' 지역이다. 환경부는 대표적인 녹색명품 조성지역으로 새만금을 지목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새만금 지역 전체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5천9백50헥타르에 대한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12월 생태복원·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단 활용 예정 부지를 3개 권역과 1개 광역 네트워크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북부권역 2천 헥타르엔 야생 동식물이 정착하게 될 동양 최대 습지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4백 헥타르 면적의 중부권역엔 녹색체험 연구단지를 세워 녹색환경 교육·연구의 메카로 성장시킬 복안을 갖고 있다. 남부권역(4백 헥타르)에는 탄소중립숲을 조성해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새만금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또 새만금 주변을 광역 네트워크로 설정해 일주 생태탐방로와 자전거도로(1백58킬로미터)를 조성한다.

수질이 농업용에서 친수용으로 향상됐지만,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올해 안으로 다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상류천인 전주천, 익산천, 정읍천을 특별 관리하게 되는데 이곳들은 따로 유역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역의 상시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그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새만금 환경 지킴이'를 발족했으며 3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에 여의도 7배 규모 종합테마타운 조성

'녹색'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녹색성장의 큰 목표 줄기다. 환경부는 수도권을 그 메카로 삼았다. 폐자원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태양광 등 자연력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합타운은 4개 테마(폐자원 에너지타운, 바이오 에너지타운, 자연력 에너지타운, 환경문화단지)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월 3일 환경에너지타운 및 녹색관광명소 세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가용면적 약 7백만 제곱미터의 66퍼센트인 4백60만 제곱미터에 2017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해 4개 테마의 종합타운을 조성한다. 가용면적 주변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총면적(1천9백89만 제곱미터)은 서울 여의도보다 7배 정도 넓은 규모다.

이 가운데 폐자원 에너지타운은 지난 2월 기반조성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3월에는 하루 2백 톤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할 수 있는 시범시설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또한 6월부터는 하루 4천 톤의 건설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관계 법령 개선과 공모 등을 통해 추진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재정실 김영준 차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5개 공구로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사이에 걸쳐 있는데, 이 중 1개 공구의 매립이 마무리됐고 2개 공구에 대한 매립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 시기에 맞게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을 유치하는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

수도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사업도 강화된다. 오는 4월 이산화탄소 약 42만 톤의 1차분 배출권이 발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창원권의 창녕 우포늪.

동아DB





강릉시청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를 잇는 수도권 매립지에 태양광 등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의 경포습지(오른쪽).

급될 예정. 이에 따라 69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및 매립분야 기술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12월에는 환경에너지대학을 설립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그 지역 수요에 맞춰 자원화하는 '자연특화 폐자원 지역특화 순환망 구축 계획'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환경부는 시멘트, 석회석산업 등이 발달한 충북 단양 지역을 '자원순환 사회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단양 내에 있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등 4개 연구기관에선 석회석을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친환경 비료를 작물에 사용하면 악취나 해충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녕 우포늪 등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

이 지역 특산물인 마늘의 줄기와 껍질, 뿌리를 건조시켜 생균제를 넣고 가공한 가축용 사료 첨가제도 개발돼 특허 출원과 상품 브랜드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축산농가 현장에서 돼지의 폐사율을 낮추고 육질의 지방 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어냈다. 석회석으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마늘 등의 작황량을 높이고, 마늘을 원료로 하는 사료 첨가제가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환경부는 단양군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여건 분석 및 사업자 기술·재정 지원을 위한 '자연순환지원센터'를 설치해 추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동아DB

또한 환경부는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경남 창원권을 지정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는데, 그중 한 곳이 창원권에 속한 창녕 우포늪이다. 우포늪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폭이 좁아지면서 형성된 습지로 국내 최대 규모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1천5백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습지보호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습지센터 조성, 따오기 복원 계획을 추진해 우포늪을 세계적인 대표 생태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원 강릉시는 첫 사업으로 2월 경포습지(운정지구)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환경부와 강릉시는 25만2천 제곱미터의 터에 1백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경포호수가 지녔던 그대로의 습지로 복원한다. 이어 물 순환 체계를 구축, 도시 내로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강릉에서 발생한 탄소의 상쇄를 유도한다. 경포습지 전체 면적의 6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완충지역은 강릉시 주부시정평가단의 의견을 고려해 단옷날 머리 감는 데 쓰던 창포를 심는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강릉시 녹색도시정책과 김남대 과장은 "경포습지에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보호(Man and Biosphere Reserve) 개념을 도입해 완충지역 이외의 핵심지역엔 되도록 인간의 간섭이 없도록 차폐수림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청사 주차장에 50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연간 6만3천 킬로와트급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G

글 · 유재영 기자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 마을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어느 곳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목표다. 전국 기초생활권 중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한다.


충북 영동군에 있는 토굴식 와인 저장고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구경거리다.

충북 영동 | 포도 농산업 클러스터로 한 해 매출 1천억

충북 영동은 '포도의 고장'이다. 우리나라 포도 생산량의 15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포도생산지로, 지난해 1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영동군 4천6백여 농가가 포도뿐 아니라 와인과 포도즙 등 가공식품 생산, 체험관광, 포도축제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1998년 6백여 농가가 포도를 생산해 내수에만 머물러 있던 데 견주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영동이 포도의 메카로 알려진 데는 정부가 2005년부터 농업경제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한 '영동포도 농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의 공이 크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문화사업으로 연계해 1차 농산품인 포도가 와인, 와인관광열차 등 2, 3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지난해 봄부터는 우리나라 최대 인삼 약초 생산지인 금산군과 연계해 기존 와인열차를 와인&인삼열차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동 포도와 금산 인삼을 알리는 동시에 유휴열차를 관광열차로 활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동군은 농가 와이너리(포도주 양조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가당 2천만원을 지원해 총 1백 개 농가에 와이너리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현재 38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2년까지 와이너리 농가를 1백 개로 늘릴 계획이다. 영동군청 농정과 이기복 씨는 "해외 유명 와인 브랜드가 소규모 농가에서 출발했듯 농가 와이너리 사업은 농가마다 특화된 와인 맛을 살려 전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지역개발 자문을 맡고 있는 황태규 교수(우석대 레저컨벤션학과)는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모방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특화된 '나만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지역개발의 관건"이라면서 "영동이 와인과 와인열차를 개발하고, 전북 부안이 뽕을 가공식품으로 전환해 부가산업을 활성화한 예처럼 1단계 농산물에서 특화해 남이 선점하지 않은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부내륙중심권 | 6개 시군 연계 관광자원 상품화

그리움을 싣고 떠나는 기차여행, 메밀꽃 향기 찾아 떠나는 평창여행, 촉촉한 흙의 기운을 받으러 농산촌체험…. 이들 테마여행상품들은 충북, 경북, 강원도의 인접 지역들이 공동으로 마케팅하는 '중부내륙기행' 11개 테마상품 중 일부다.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영월군과 평창군,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등 6개 소규모 시군 자치단체가 상생을 위해 함께 뭉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이하 중부협력회)'가 추진한 성과물이다.

중부협력회는 해당 지역들이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살려 200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함께 관광사업에 뛰어들었다. 11개 테마상품에 이어 6개 시군의 문화체험과 레포츠를 엮은 체류형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산사(山寺)투어로 추진되는 '영월 법흥사~평창 월정사~영주 부석사~봉화 청량사~단양 구인사~제천 정방사' 코스가 그 예다.

문화축제 상호 교환 방문도 특징이다. 영월군의 단종문화제, 평창군의 효석문화제, 제천시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단양군의 소백산철쭉제, 영주시의 풍기인삼축제, 봉화군의 봉화송이축제 등을 각 시군이 대표 축제로 선정해 지역민들이 상호 방문함으로써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이들 지역의


영동군청

기초생활권 발전 이렇게 추진합니다

1백63개 기초생활권 : 전국 2백30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69개구를 제외한 1백61개 시군(75개 시, 86개 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더한 지역이다. 기초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교육,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필요한 생활공간이다.

기초생활권 10대 중점 과제 : 정부가 올해부터 5개년간 추진하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국민이 어디에 살든 최저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를 지향한다. 1995~2005년 농촌지역의 인구가 무려 18.6퍼센트 급감하고, 고령화율이 21.6퍼센트에 달하는 데다 의료, 주거환경이 취약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에 주목해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1백63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점 10대 과제는 지역 녹색성장 추진, 지역 간 연계협력 구축, 지역 의료복지 개선, 지방교육의 활성화,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역사·문화의 장소마케팅, 지역리더 활성화, 향토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이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김성한 주무관은 "현재 지역에서 제출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심의 중이며 지역특화 부문과 연계협력 부문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말쯤 우수 사례를 선정,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경북, 강원 3개도 인접지역의 6개 시군이 함께 '중부내륙기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특산품인 한약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군이 재배, 건조가공, 유통판매, 홍보 등을 분담하는 '한약재 명품화 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전북 진안 | 평균 연령 40대 이하 '귀농·귀촌 1번지'

전북 진안군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린다. 우리나라 농산어촌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데 비해 진안군은 2007년 이후 귀농·귀촌자가 3백20가구 7백86명으로 늘었다. 귀농·귀촌자의 연령대도 40대 이하로 젊은 편이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구호 아래 귀농·귀촌자를 끌어모은 진안의 비결은 젊은 층이 귀농했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른바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활성화한 데 있다. 현재 30개 마을에서 7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와룡마을은 홍삼 진액, 산초, 달맞이씨 등을 판매하는 영농법인에 농가를 참여시켜 상당한 농사수입 외에 가구당 1천만원 가까운 배당과 인건비를 지급했고, 이익금 중 일부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능길마을은 60억원 규모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고 마을체험 프로그램, 슬로푸드 체험관 등을 운영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마다 젊은 간사를 두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또 마을들이 함께 모여 2006년에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연 데 이어 2008년부터는 매년 20개 마을이 참여하는 '진안군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진안군청은 '마을 만들기팀'을 두고 이들 마을을 적극 지원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대산농촌문화상 농촌발전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진안군청 마을 만들기팀의 이호율 씨는 "진안군의 2백98개 마을에서 매년 주민들이 기획한 사업을 30여 개 선별해 마을경관 가꾸기 사업부터 1백만~2백만원대 소액지원을 해준다. 실적이 좋을 경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으뜸마을 가꾸기, 녹색농촌마을 가꾸기의 단계로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차츰 지원금을 늘리는 인센티브 방식이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동아DB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는 이 고장의 복덩이다. 제주에서 나비를 공수해와 친환경 축제를 만드는 등 창조적 발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다.

창의력·인재가 지역경쟁력지수 높인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차별화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라'. 지난해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전국 1백63개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공간자원, 주민활력 등 지역경쟁력 항목을 평가해 지역경쟁력지수 높이기 해법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지역발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여에 걸쳐 전국 1백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광역시 69개 구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경쟁력지수(RCI ·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를 발표했다.

국내 인구의 53.9퍼센트가 거주하는 전국 1백63개 기초생활권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순위를 매긴 RCI 상위권에는 경기 남부 등 대도시 접근성이 높은 시군이 대거 포진했다. 하지만 대도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일부 군 단위 낙후지역도 창의성과 연계협력 등을 통해 얼마든지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RCI는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공간자원 △주민활력 등 4개 항목 31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 조사에서 경북 성주군, 충북 진천군 등은 '자립형 발전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자원 외에는 마땅한 자원도 없지만 차별화된 전략으로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접근성·자원 없어도 창조적 아이디어로 지역발전 성공

'성주 참외'로 잘 알려진 경북 성주군은 전체적인 RCI 순위에서는 5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경제력 항목에서는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전체 18위에 올랐다. 지역경제력 지수는 주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지자체 재정력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으로 지역의 현재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성주는 연간 농산물 판매소득 3천만원 이상인 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창우 성주군수는 "60년 이상 된 참외 재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외 산업화를 추진해 지금은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만 4백 가구를 넘는다"며 "다양한 참외 가공식품 분야로 산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거진천 쌀'을 테마로 한 지역 농업개발 기획에 성공한 충북 진천군은 지역경제력 지수에서 21위에 올랐다. 맞춤비료 개발, 쌀 상표 개발, 다양한 논농업 기술 개발과 보급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과 정교한 기획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공간자원을 문화관광산업 등으로 연결해 성공을 거둔 충북 단양군, 강원 평창군 등은 종합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간자원 지수는 녹지, 문화재 등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등을 포함한 지표로 해당 장소가 지닌 매력도를 나타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지역이 보유한 자연환경, 문화재 등 공간자원을 활용한 발전 모델이 낙후지역의 발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발은 '사람'… 인재 육성·지역리더 역량 강화 등 필수

RCI 종합순위 및 개별항목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른 시군 중 상당수는 지역 내 특산물이나 관광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모델이었다. 경북 상주시의 곶감, 경북 포항시의 과메기, 전북 부안군의 뽕과 고창군의 복분자 브랜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주체들은 물론 인접 지역과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충북 영동군은 지역 내 경제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포도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 경남의 하동·함양·산청군 등 지리산과 인접한 자치단체 7곳은 지리산 관광개발 사업을 공동 기획했다.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봉화·영양·청송군은 지역 특산물 공동 브랜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창의성과 연계협력을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결국 출발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핵심 인재 육성과 유지가 관건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나비축제'라는 창조적 발상으로 성공을 거둔 전남 함평군은 주어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우다. 함평군청 문화관광과 오금열 과장은 "함평은 10년 전만 해도 천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이 전혀 없는 '3무(無)' 지역이었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생각해낸 게 나비축제였다"고 말했다. 함평은 친환경 이미지의 나비축제를 시작할 때 제주에서 나비를 공수해왔다.

전문가들은 창의성과 연계협력을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결국 출발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핵심 인재 육성과 유지가 관건이라는 게 공통 견해다.

전국 86개 군 지역 대부분은 두뇌 유출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지역은 인재 육성, 지역리더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남 함양군, 강원 화천군 등 지역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공통적으로 교육 인프라 투자와 인재 확보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김남국 경영지식팀장은 "각 시군이 차별화된 역량과 자산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RCI 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G

글 · 조용우(동아비즈니스리뷰 기자)

1백63개 시군 경쟁력 강화 모델

모델	사례	특성
지역 단독 기존 자원 활용	경북 상주시(곶감), 경북 포항시(과메기), 전북 부안군(뽕), 전북 고창군(복분자)	지역 특색에 맞는 독창적 전략 수립 가능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시너지 효과에 한계
지역 간 협력 기존 자원 활용	충북 영동군·충남 금산군(인삼, 와인열차),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곡성·구례군 및 경남 하동·산청·함양군(지리산 둘레길)	여러 지역 참여로 마케팅 및 상품개발 역량 강화 실행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이 과제
지역 단독 신시장 개척	전남 함평군(나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 주민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지역 간 협력 신시장 개척	강원 화천군(산천어)	자원과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새로운 모델 실행에 따른 위험 분산 지역 간 의견 조율이 과제

출처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충북도

충북 단양군은 공간자원을 문화관광산업으로 연계했다. 사진은 도담삼봉.



동아DB



동아DB

英·佛·日 글로벌시대 선진국들의 전략

광역경제권으로 “더 크게 더 좋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경제권역을 좀 더 큰 공간 단위로 확장하는 작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들의 사례는 지역발전 정책을 시도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경제활동의 공간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통합 확대되고 있다. ‘국가’라는 상징성을 띠는 개념보다 ‘도시’나 ‘지역’처럼 경제활동이 집적된 실질적 공간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오래전부터 많은 석학들은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보다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오마에 겐이치는 “앞으로 ‘지역국가(Region States)’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라고 주장했으며, 캘리포니아대 앨런 스캇 교수도 “‘대도시’의 개념을 넘어 정치 및 경제 주체 역할을 하는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Regions)’이 등장해 세계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점쳐왔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지역이 공동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경제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 간 초광역개발권, 이른바 ‘슈퍼지역(Super Region)’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영국은 1964년 윌슨 정부가 잉글랜드 지역을 8개 계획지역으로 설정한 바 있고, 1997년 집권한 블레어 정부가 본격적인 광역경제권 정책을 수립했다. ‘9대 광역경제권’ 정책이 그것.

평균 인구 5백60만명, 지역 총부가가치 2천억 달러인 9대 광역경제권은 1998년 본격 출범한 ‘지역개발청(RDA)’이 관장하고 있다. RDA는 최근 우리나라에 설립된 광역경제권지역발전위원회의 모델이다. RDA는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재개발 추진,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고용 증진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RDA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민간기업 대표 등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지역경제 발전전략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또 지역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3년마다 이를 수정 보완해 다른 경제 주체들이 이를 참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RDA는 그간 지역 신규사업 지원, 고용 창출, 인재 육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경제 전략’에 ‘지역공간 전략’을 통합해 광역경제권의 기능적 심화와 확대를 추구했다.

英, 잉글랜드 북부 ‘초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지원

강원대 지리교육과 정성훈 교수는 이에 대해 “이제 광역경제권에서 벗어나 초광역개발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본격 지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은 2004년 낙후지역으로 꼽힌 잉글랜드 북부경제권(북동부권, 북서부권, 요크셔&험버권)을 살리기 위해 3개 RDA를 연합해 초광역경제권인 TNW(The Northern Way)를 설립해 지원한 바 있다. 영국 북부 초광역경제권(PNR) 정책에 힘입어 국내 차원에서는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남부지역과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북부광역경제권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지닌 세계적 경제 단위로 전환시키는 등 나름의 효과를 거뒀다.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블록화돼 있고 지역





동아DB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으로 넓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진은 9대 광역경제권이 설정된 영국의 런던권,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6개 대광역권을 추진 중인 프랑스의 리옹, 지난해 광역계획을 수립한 일본의 긴키권 오사카 지역(왼쪽부터).

발전 정책이 인프라 확충 등 개발정책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국의 3개 광역경제권이 힘을 합한 것처럼 자율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도 지역발전을 글로벌 성장의 근간으로 삼고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률은 18.8 퍼센트로 안정되고 반대로 지방의 인구 및 경제성장은 수도권과 비슷해지는 현상을 낳았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차원으로 접근해 기존의 도(Department)보다 규모가 큰 구역인 21개 지역(레지옹)을 신설했다. 이후 1963년 드골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 전담기구(DATAR)를 만들고 1년 뒤 지역 단위의 행정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프랑스에선 자율적으로 대도시 광역경제권이 형성됐다. 5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만든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이 그 예. 이후 보르도, 릴, 스트라스부르 등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대도시 광역경제권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대도시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부터 광역 행정단위인 22개의 레지옹을 묶어 전국을 대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했다.

경성대 행정학과 배준구 교수는 "DATAR는 2000년 대규모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6개 대광역권을 구상했다"며 "이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장기적 관점의 모의실험"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에는 지역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대를 위해 경쟁거점 정책도 대거 도입됐다. 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자는 것. 경쟁거점 정책은 지역 간 및 국경을 초월한 협력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 2개 이상 지역이 참여하는 산업클러스터가 71개의 경쟁거점 중 38퍼센트를 차지했다. 2008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쟁거점 정책이 프랑스 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프랑스는 광역권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이 참여해 지역경제 개발에 투자하는 '계획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때 프랑스의 계획계약을 모방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배준구 교수는 "프랑스는 지역발전 사업에 많은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DATAR 같은 조정 및 협력체계를 잘 구축했다"며 "DATAR가 약 50년간 지역정책 기구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佛, 지역 단위 행정협의체 꾸려 지역발전 도모

일본에서도 지역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광역계획을 수립했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수도권, 긴키권, 규슈권 등 8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우경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역의 자립여건 향상과 광역권별 중심도시 성장,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각 지역만의 특성이 뚜렷해지면서 기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광역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확정된 전국계획에 기초해 10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8개 권역 광역계획이 지난해 수립됐다. 이 계획의 특징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한 일본 최초의 '지역 주도 계획'이자 '권역별 특성화 계획'이라는 점. 도쿄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기능의 강화'를, 우리나라와 가까운 규슈권은 '동아시아 국제교류 프런티어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발전전략과 사업이 마련돼 있다. 송우경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의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상황을 미뤄볼 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권 간 연계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정부가 나선다

청소년 체험형 성교육·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등 박차

2010. 1. ○○○
'19살인데 임신한 지 6개월 됐어요. 상황이 안 돼서 낙태를 하려고 하는 데요. 서울 쪽 아니면 경기도에 임신중절수술 가능한 병원 있을까요? 지방도 괜찮습니다. 병원 이름이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2010. 1. ○○○
'○○병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쪽지로 보냈습니다.'

임신·육아정보 카페에선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이하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수소문하는 임신부들의 글과 낙태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은밀하게 알려주는 답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성적 낙태수술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생긴 아이를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평생 여성성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다.

개방적인 성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낙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성들의 첫 성관계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미성년, 미혼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결국 불법 낙태수술 병원을 수소문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왔다. 기혼 여성들의 낙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특히 기혼 여성들의 낙태 시도는 해마다 감소 추세인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에선 청소년들의 성 절제 및 피임법에 대한 자발적 체험의 중요성이 비중 있게 강조됐다.

위기임신지원센터 도입해 출산에서 양육까지 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1일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 대책은 체험형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낙태 전 피임법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면서 이미 아이를 출산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10대 청소년들을 주 타깃으로 한 성 절제 및 피임교육이 활성화된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청소년 및 대학생 '리더'를 선발해 또래집단 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보호 및 절제가 생활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청소년 등의 '위기임신' 사례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세워지고, 거점병원 등과 연계해 출산 임박 전 입원 및 퇴원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임신 중 일 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신 확인, 산전 진찰, 의료비 등의 무료 지원이 핵심.

청소년 불법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를 우선 도입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부터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위기임신 전담팀을 신설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사례를 집중 관리한다.

상담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출산 전까지 상담과 양육 정보를 지원하는 위기임신지원센터 도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후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미혼모와 미혼부의 실질적 자녀 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의료비(월 2만4천원)를 지원한다.

미혼모 자립을 위한 그룹홈 시설 및 가정 위탁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입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더 확실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학습이 단절된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연간 1백54만원)를 지원하고, 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직업훈련 기회도 알선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목표 아래 지난 2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관으로 시민사회, 종교계, 여성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낙태 근절 사회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중 사회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혼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분만수가 현실화,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등을 통해 출산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낙태수술에 대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후 각론의 지원 대책을 수시로 세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일러스트 · 이승현

탄탄한 일자리 위한 디딤돌 되어 드립니다

취업 취약계층 1만명에 일자리 알선·취업 지원

대구에 사는 여성가장 김모(42) 씨는 지난 1월 노인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로 취직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소개로 다섯 달 동안 요양병원에서 조무보조로 일했다. 그 후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에게 고용지원센터가 정식 취업을 알선해준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김 씨처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디딤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디딤돌 일자리' 1만 개를 제공한다. 디딤돌 일자리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등에서 3~5개월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다.

비영리기관서 3~5개월 직장생활 경험 쌓게 도와줘

디딤돌 일자리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라는 점에서는 '희망근로'와 같지만, 희망근로 대상자보다 기초 직무능력이 더 낮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취업 의욕이 없는 장기실업자,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새터민, 장기간 경력단절여성, 노숙자, 출소자 등이 디딤돌 일자리 대상자들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졸업 후 취직한 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실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혀 취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 일자리 참여자는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복지단체, 지방 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보육시설, 학교, 직업훈련기관, 사회적기업 등 상시 근로자가 4인 이상인 공익기관이다. 참여자는 주 35시간 이내로 일하면서 월 7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업무는 사무보조, 급식보조, 청소, 간호조무보조, 교통요원, 화단 정리 등 참여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일을 하게 된다.

또한 참여 기간 동안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취업 기술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장점이다. 3~5개월의 참여 기간 중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등 취업 기술 지원을 해주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업 알선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디딤돌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과 함께 '취업 의욕'을 불어넣고 향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심층상담을 받거나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디딤돌 일자리에는 1만1백52명이 참여해 4천3백90곳의 비영리기관에서 일했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여성 등 여성 참여자가 전체의 84.5퍼센트인 8천5백81명에 달했다.

또한 장기실업자 2천2백11명, 고령자 1천5백39명, 장애인 3백78명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에게 도움을 줬다. G

글 · 최은숙 기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Tel **1588-1919** **워크넷** **www.work.go.kr**

갑작스런 사고로 막막할 땐

☎ 129 또는 hope4u.go.kr

소망이 엄마(36)는 불의의 화재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다. 소망이 엄마는 여기저기 일할 곳을 알아보았지만 그동안 살림만 해왔던 터라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어린 소망이를 보며 눈물을 참고 인터넷에서 일자리 정보를 찾던 중 '긴급 생계급여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구청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받고 담당자를 찾아간 소망이 엄마는 긴급 생계급여 서비스를 받고 막막했던 삶에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었다.

긴급 생계급여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 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고 보조형 서비스다.

소망이네처럼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했을 때,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휴폐업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생계비 외에도 주거, 의료, 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함께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러스트 · 남동윤

이처럼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어떤 민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찾기 힘들어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정부 부처의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 지원 서비스 정보포털 '희망길잡이넷'을 열었다.

희망길잡이넷에서는 정부 10개 부처, 4개 청, 6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창업 지원,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 지원,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생활 지원, 보육과 학자금 지원, 주거 지원 등 6개 분야 96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희망길잡이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도 가능

희망길잡이넷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포털과 달리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일목요연하게 배치했다. 민생안정 지원사업 목록을 검색하면 관련 서식, Q&A, 상담자료, 관련 링크 등 자세한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에 '신호등' 표시를 하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와 종료된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진행 정보를 알려줘 이용자가 종료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울이는 수고를 덜고, 현재 진행되는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온라인 상담실에서는 각종 궁금증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긴급전화인 기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상담과 함께 온라인 상담 역시 가능해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연령, 소득, 직업 등 이용자의 상황을 입력하면 통합 정보를 분석해 해당되는 서비스를 찾아주는 '맞춤 정보 검색'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희망길잡이넷 www.hope4u.go.kr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전액 지원

작업장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비용도 50만원까지

#1 서울 을지로의 작은 인쇄소에 근무하는 박철웅(가명 · 30) 씨. 박 씨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인 인쇄소는 통풍이 되지 않아 늘 잉크 등에서 풍기는 화학물질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올해로 근무 3년차인 박 씨는 선배들이 난청과 편두통,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제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한 선배는 1년 넘게 진폐증으로 고생하다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박 씨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검진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2 경기 부천시에서 소규모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김미숙(가명 · 50) 씨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작업장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일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직원들과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내기 힘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박 씨와 김 씨처럼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존재 여부와 근로자들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작업환경측정 비용도 한 작업장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애나 진폐증, 난청 같은 직업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 소음 등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이 확인 절차를 거쳐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추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직접 지불한다. 특수건강진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연중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번 지원으로 올 한 해 동안 1만2천개소,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송세욱 부장은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 지원 비용을 사업장당 5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조영철 기자

작업환경이 열악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노동부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모두 4천4백95개 사업장에 지원됐으며 1만7천2백31명의 근로자가 무료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올해는 약 1만2천여 개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진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도 현재 10인 미만 작업장에서 차츰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 G

글 · 김광숙 객원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 Tel 032-5100-500 www.kosha.or.kr

봄나들이 ‘TAGO’ 가자

〈통합 대중교통 정보 사이트〉

연합



‘타고’ 서비스(오른쪽)에선 전국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정보와 환승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왼쪽은 경남 진해시 경화역에서 출발하는 진해군항제 ‘벚꽃 열차’.

www.tago.go.kr



친구와 함께 전남 곡성으로 ‘봄꽃여행’을 가기로 한 이현미(28) 씨는 ‘타고’ 사이트에 들어가 서울에서 곡성으로 가는 대중교통을 검색했다. 정렬 방식으로 최단 시간을 선택하고 출발 시간을 지정하자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 항공노선이 한눈에 펼쳐졌다.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가장 빨리 저렴하게 갈 수 있지만, 기차여행을 하고 싶었던 이 씨는 ‘열차노선 더 많은 결과 보기’를 통해 새마을호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무궁화호가 있음을 알고 ‘SMS 보내기’를 눌러 친구에게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타고(TAGO ·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서비스는 전국의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정보, 환승 정보 등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이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제공해오던 대중교통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타고 서비스를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14개 주요 도시의 버스교통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전국 모든 시군의 버스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이나 대중교통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해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환승경로를 검색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국 지하철 출구별 시내버스노선 정보, 버스터미널 안내, 위성지도 서비스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검색 단계를 축소하고 이용도가 높은 메뉴를 눈에 띄게 배치했으며 디자인을 산뜻하게 바꿔 이용하기 한층 편리해졌다.

‘타고’를 활용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국 대중교통 정보, 교통수단별 정보, 도로소통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를 키오스크나 휴대전화로 전송할 수도 있다. 김해공항, 김포공항,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서울남부터미널 등 9개 환승지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환승지점 주변 정보와 원하는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대중교통 최적경로 정보, 잔여석 정보, 시내버스 정보 등을 알 수 있으며 휴대전화 정보 이용료는 무료다.

전국 대중교통 정보 인터넷 검색 후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도

교통수단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별로 부분적인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이 있으나, 전국의 대중교통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은 ‘타고’가 처음이다.

국토해양부 김우철 신교통개발과장은 “최단 시간과 최소 요금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최적경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계 교통편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사이트에서 교통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해운여객 정보를 추가하고,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와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토털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TAGO **www.tago.go.kr 휴대전화 1333+무선인터넷 버튼**



2010년 60만 국군 장병들의 '공식 여동생'이 된 걸그룹 f(x). 왼쪽 윗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빅토리아, 엠버, 루나, 설리, 크리스탈.

동아DB

"60만 장병 오빠들의 서포터스입니다"

국군방송 홍보대사 걸그룹 f(x)

올 한 해는 국군 장병들이 '함수' 깨나 풀어야겠다.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무지 싫어했던 장병들도 2, 3차 방정식과 인수분해가 절로 떠오를 것이다. 걸그룹 'f(x)'가 올해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friends FM 홍보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f(x)는 2003년 쥬얼리, 2004년 장나라, 2005년 홍경민, 2006년 아이비, 2007년 배슬기, 2008년 한영, 2009년 김흥국에 이어 2010년 국방홍보원의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장병 위문활동을 펼치게 된다.

데뷔 직전 첫 무대가 국군방송… 인연 깊어

f(x)와 국군방송은 인연이 각별하다. 지난해 9월 데뷔 직전 첫 무대를 가진 곳이 국군방송이었다. 이후 각종 군 위문공연마다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방홍보원에선 홍보대사 후보 1순위로 미리 점찍어 놨다. f(x)도 지난해 12월 국군방송 위문열차 해군 2함대 특집공연에서 "우리들은 60만 장병 오빠들의 든든한 서포터스이자 여동생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다른 걸그룹이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는 후문이다.

빅토리아, 크리스탈, 설리, 엠버, 루나 등 5명의 멤버로 구성된 f(x)는 1집 타이틀곡 '라차타(LA chA TA)'로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제2의 소녀시대'라는 칭호를 얻었다.

멤버 중 크리스탈은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의 친동생으로 데뷔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각종 CF와 남성그룹 샤이니의 '줄리엣'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다. 중국 출신인 빅토리아도 데뷔 전부터 슈퍼주니어-M과 샤이니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루나는 SBS '진실게임'에서 '웨이브 소녀'로 데뷔 신고를 했다. 대만계 미국인 엠버는 중성적인 매력이 눈길을 끈다. 설리도 데뷔 전 SBS 드라마 '서동요'에서 탤런트 이보영의 아역인 선화공주로 등장했다.

f(x)는 x라는 변수에 따라 값이 변하는 함수다. 다양한 재능과 '끼'로 뭉친 이들이 환호하는 장병들 앞에서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기대가 크다. G

글 · 유재영 기자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의수족 무료 수리 '에이블 디자인 카' 4인방



'에이블 4총사'라 불리는 장민석, 정상민, 선동근, 이성욱 씨(왼쪽부터).
이들은 틈 날 때마다 '에이블 디자인 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 고장난 의수족을 고쳐주기 위해 봉사하러 떠난다.

서울의 한 의수족 업체에서 10년 안팎씩 일해온 장민석, 정상민, 선동근, 이성욱 씨는 '팔·다리 제작의 달인'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에이블복지재단이 '장애인 의수족 무료 수리 사업'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뭉쳤다.

한 자동차 업체의 도움으로 2.5톤짜리 트럭을 고장난 의수족을 고쳐주는 '에이블 디자인 카(Able Design Car)'로 개조하면서 이들의 봉사활동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에서 70대 할아버지의 의족을 고쳐준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이들이 의수족과 휠체어를 수리해준 장애인은 70여 명에 달한다. 경기 가평, 충남 부여는 물론 경남 산청, 강원 화천·인제 등 길이 험하고 외진 마을만 찾아다녔다. 한번 떠나면 2박3일은 기본.

장 씨는 강원 철원에서 만난 70대 노인을 떠올렸다. 지역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찾아온 교통사고 절단 장애인이었다. 목발을 짚고 온 노인은 검정 비닐봉지에서 두 동강이 난 의족을 주섬주섬 꺼내놓았다. 방치한 지 십수 년이 됐는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 장 씨에게 노인은 "아마 못 고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두어 시간 진땀을 흘리며 의족을 고치는 동안 노인은 그의 손끝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고치고 나서 한 시간 남짓한 조절작업 끝에 의족이 발에 딱 맞은 순간, 무뚝뚝하던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트럭은 마을의 좁은 도로를 지나기 쉽지 않은 탓에 보통 마을회관이나 식당 툇마루에 '판'을 펼칠 때가 많았다. 의수와 의족을 현장에서 뚝딱 고쳐준다는 소문에 벽장 속에 넣어둔 의수족을 들고 몰려오는 장애인들이 줄을 섰다. 혹시나 기회를 놓칠까 초조하게 눈을 맞추는 어르신들을 두고 자리를 뜰 수가 없어 발전기를 돌려 불을 켜고 야간작업을 벌여야 했다.

이 씨는 그중에서도 손목 아래가 절단돼 찌는 듯한 한여름에도 면장갑을 끼고 살아야 했다는 한 노인이 의수족을 전달받고 울먹였다는 사연을 전했다.

"어르신이 '어쩌면 이렇게 내 피부색과 똑같을까. 이걸 몰라서 평생 장갑을 달고 살았네' 하시더군요. 보시다시피 저도 왼쪽 팔꿈치 아래가 절단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정이 남 얘기 같지 않았죠."

'에이블 디자인 카'를 점검하며 바삐 움직이던 정 씨의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였다. 그가 바짓단을 쓰윽 올리자 의족이 나타났다.

"발길 닿는 곳마다 장애인에게 꿈·희망 나눠주고 싶어"

"어릴 적 사고로 오른쪽 무릎 관절 아래를 잃었습니다. 지체장애 3급이지만 생활엔 별 지장이 없어요. 장애인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데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장애인'이란 사실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네도 다리가… 언제쯤? 어허, 그럼 내 후배구먼' 하면서 바짝 다가옵니다."

'에이블 4총사'는 올봄에도 날씨가 풀리는 대로 소록도를 찾아 한센병 환자들의 의수족을 고쳐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재단의 예산이 넉넉지 않아 더 많은 장애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 씨는 "'이번 한 번 오고 안 올 거지?'라고 묻는 장애인들에게 '꼭 다시 오겠다'며 손가락을 걸어주고 싶다"고 했다. "자동차 '에이블 디자인 카'는 '새로운 인생을 디자인하자'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차를 타고 발길 닿는 곳마다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G

글 · 채성진(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김밥할머니의 뜻,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50억 기부 故 이복순 여사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정심화장학재단



조영철 기자



1991년 정심화장학재단 창립식에서
이복순 할머니가 당시 충남대 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할머니의 기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책에 그의 사연이 실렸다.

'김밥할머니' 고(故) 이복순(법명 정심화) 할머니의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김밥을 팔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그의 나눔 정신이 교과서에 실려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미래앤컬처그룹 발행) '아름다운 사람들'에 소개된 이 할머니는 듣기, 말하기 과제로 언급돼 아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분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

이 할머니는 '김밥할머니'의 원조다. 김밥할머니는 한때 이 할머니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지만, 이제는 평생 어렵게 번 돈을 사회에 기증하는 미담의 주인공을 일컫는 보통명사가 됐다. 대전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이 할머니에게 지역민들이 붙여준 별명은 이제 그와 같이 선행하는 전국의 또 다른 할머니들에게 붙여주는 '예명'이 됐다.

이복순 할머니는 1914년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태어났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외아들을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러나 39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되는 시련이 찾아왔다. 졸지에 가장이 된 그는 그 후 30년 동안 행상을 하거나 여관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다. 그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운동회나 행사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김밥과 음료수를 팔기도 했다.

할머니의 외아들 임채훈(64) 씨는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가 열리면 김밥을 머리에 이고 와 팔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다"며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김밥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와 충남대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 당시 충남대 오덕균 총장과 안병기 기획실장에게 '어느 할머니가 부동산으로 장학기금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받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기증 의사를 밝힌 부동산은 그 때 시가로 50억원에 달했다. 당시로서는 개인이, 거액의 부동산을, 그것도 지방대에 기증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대전일보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김밥할머니의 거액 기부 소식은 그해 2학기 내내 대학가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 할머니의 법명을 따 이름을 붙인 정심화장학재단 창립총회는 이듬해인 1991년 1월 서울에서 열렸으며, 문교부(현 과학교육기술부)에서 재단 창립총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 여사의 따뜻한 기부 정신을 기리고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

정심화장학재단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2백32명에게 4억7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2년 8월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기공식도 가졌다. 2000년 완공된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은 한때 국고 지원을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도 기부문화의 상징이자 대전 시민들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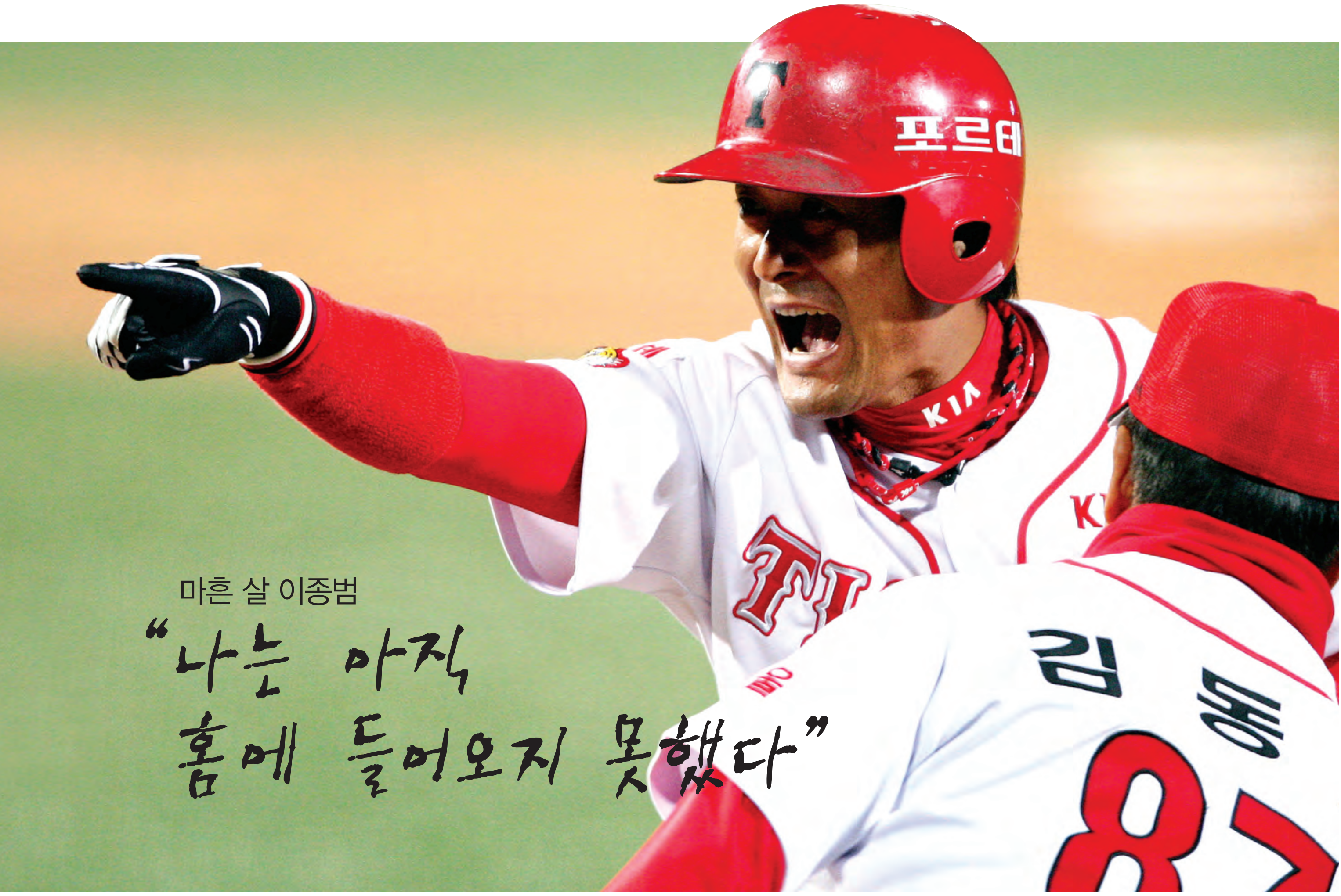
소설가 권정생·유일한 박사도 함께 수록

이 할머니는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기공식 직후인 1992년 8월 7일 충남대병원에서 향년 79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우리 곁을 떠났지만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사회에 기부하는 제2, 제3의 김밥할머니는 매년 다시 태어나고 있다.

한편 이 교과서는 김밥할머니 사연과 함께 따뜻한 기부를 앞장서 실천한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선생의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권정생 선생은 책 판매 인세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으며, 유일한 선생은 회사를 비롯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공주교육대 박태호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복순 할머니 등의 이야기를 실어 간접적으로 세 분의 숭고한 삶의 의미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수영(대전일보 사회부 기자)



마흔 살 이종범

“나는 아직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2009 한국시리즈 SK와의 1차전에서 역전 적시타를 때린 뒤 덕아웃의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이종범.

‘야구 천재’ 이종범(KIA)이 불혹의 나이가 됐다. 1993년, 깡마르고 앳된 모습으로 프로에 데뷔해 환상적인 플레이로 야구팬들을 매료시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 세월이 흘렀다. 변함없이 빼어난 실력에 연륜까지 쌓아올렸다. 이제 야구에 관한 한 ‘입신(入神)’의 경지에 올라섰을 만도 한데 정작 본인은 고개를 젓는다. 그러면서 “이제야 비로소 야구가 뭔지 알게 됐다”고 한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이 말하는 야구란 무엇일까.

생각지도 못했던 ‘마흔 살 현역 선수’. 뒤돌아보면 그에게 야구는 인생과도 같다. 이종범은 “젊었을 때 무서울 것 없다가 처절하게 좌절도 맛보면서 뭔가를 알게 됐지만, 한편으론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꼭 인생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종범은 마흔을 맞으면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절박함’을 외친다. 개인 통산 2천 안타(한일 통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은퇴해도 여한이 없지만 새삼 야구의 맛을 알게 된 마당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 절실해요. 젊어서는 놀면서 해도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젠 하루를 한 달처럼 살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여유도 생겼지만 적잖게 긴장도 하고 살아요.”

말뿐이 아니다. 그는 지난겨울 일본 미야자키 전지훈련을 ‘독하게’ 소화했다.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루를 한 달처럼 살아”

“힘껏 훈련하고 잠시 쉬면서 땀을 닦으면 어린 선수들이 ‘지치지 않으세요?’라고 물어요. 그런데 지친다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있어 내색하지 못하고 견뎌냈죠.”

이런 모습에 주변에선 그가 회춘했다고 난리다. 광주일고 후배인 최희섭은 “선배님이 스윙하고 수비하는 걸 보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황병일 수석코치도 "이종범이 팔팔하기에 하루는 '어째 마흔이 아니라 서른아홉이 된 것 같다'고 했더니 씩 웃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불혹' 이종범을 독하게 몰아세운 건 무엇일까. 그는 "잊었던 기본자세, 특히 폼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종범은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로 참가해 맹활약했다. '역시 이종범'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정작 시즌이 개막되자 내리막길을 탔다. 2006시즌 타율이 0.242로 떨어지더니 2007년에는 0.174로 급락했다. 그때 '이종범 야구는 이제 끝났다'는 게 대세였다. 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



주루 훈련 중인 '불혹'의 이종범. 일본 미야자키 전지훈련 캠프에서 조범현 감독도 놀랄 만큼 후배들보다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냈다.

그 이유는 폼, 특히 지나친 상체 위주의 스윙이었다. 이종범은 "하체는 안 쓰고 상체는 딱딱하게 돌렸다. 몸쪽 공, 변화구, 높은 공에 전혀 대응이 안 됐다"고 회상했다. '편하게' 야구하려는 무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 데뷔 때부터 일본 주니치 드래건스로 이적하기 전까지는 하체를 단단하게 받쳐놓고 공을 때렸다.

"상체 위주의 스윙은 단기전에서는 어느 정도 통해요. 1회 WBC 때는 집중력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백30경기 정도를 치러야 하는 정규 시즌에선 그런 폼이 반드시 탈이 나고, 한번 익숙해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편안해지기 위해 시도했던 상체 위주의 스윙. 과거의 이름값에 기댄 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했다.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여기에 만점 센스까지 좇아올 자가 없었다. 그래서 '천재'라고 불렸고 스스로도 오로지 맨 윗자리에 선 자신만 보였다.

"잘나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야구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루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다음 날 도루를 했고, '만루 홈런 한 방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만루 홈런이 쳐지더라고요. 정말 못 칠 공이 없었어요. 모든 게 생각대로 됐죠."

이랬던 그가 2008년 초 은퇴설에 휘말릴 정도로 추락했으니 그 절망감이 오죽했을까.

"내 스윙이 이 정도로 망가졌나 하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즌 중이라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니 너무 괴로웠어요."

'은퇴 시점은 나 아닌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우여곡절 끝에 은퇴설을 잠재운 그는 2008시즌을 앞둔 전지훈련에서 두 달가량 밤늦게까지 스윙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 퇴화한 하체 근육을 복구하기 위해 지독하게 근력운동도 했다. 노력은 주효해서 2008년 0.284의 타율로 살아났고, 지난해에도 타율 0.273의 좋은 성적을 냈다. 올해도 출발이 좋다. 시범경기에서 쾌조의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 더구나 올시즌엔 한일 통산 2천 안타(한국 1천6백67개, 일본 2백86개) 달성이라는 목표가 생겨 타석마다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개인기록 달성 욕심보다는 팀이 우선이다.

"과거 잘나갔을 때도 '팀이 잘돼야 나도 빛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막연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팀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느낌을 아주 절감합니다."

마흔에 알게 된 야구… "팀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이유 절감"

노장은 희생하기가 쉽지 않다. 타구를 의식적으로 밀어쳐서 내야 땅볼을 치면 진루는 성공시켜도 본인의 타율은 떨어진다. 출장 기회에 연연하는 노장들은 그래서 희생타보다는 무리하게 쳐서라도 안타를 뽑아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르다.

"젊은 선수들하고 맞부딪쳐 싸워야 하는데 당장 희생만 할 수는 없죠. 정말 늙은 선수가 땅볼 치고 물러나면 팬들은 야유를 보내요. 그렇지만 야구를 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왜 밀어쳐서 내야 땅볼을 만드는지를."

이처럼 마흔에 야구를 알기 시작했다지만 이젠 은퇴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종범은 "팬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느끼는 때가 은퇴 시기"라고 말했다. 그래도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순간까지 팬들을 위해서라도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제 또래 40대 중년 팬들이 같은 처지라고 보실 것 같아요. 40대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비굴함, 서글픔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뛰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다시 한 번 뛰어보자, 쉽진 않지만 달려보자'고 기운을 얻으셨으면 해요." G

글 · 윤승옥(스포츠서울 야구팀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44 화
섬진강 매화마을
글 · 이연수 그림 · 이호
와글 와글 정말 곱네!
아니, 주말마다 낚시 가느라 바쁘신 양반이 뭐 하러 여긴 쫓아와서….
다들 당신 때문에 어색해하잖아요!
어제 당신이 또 곰국 끓이기에 벌써 꽃놀이 시즌이 시작된 걸 알았어요….
덜덜덜
당신은 봄만 되면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잖아요!
매화 피면 매화축제, 동백 피면 동백축제, 산수유 피면 산수유축제, 벚꽃 피면 벚꽃축제, 연꽃 피면 연꽃축제….
당신이 낚시 과부라면 난 꽃놀이 홀아비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같이 다니기로 노력해요.
섬진강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다잖아요? 갈대밭도 복원하고 생태습지도 조성한다니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갈대밭? 생태습지? 그렇다면….
꺽지
은어
쏘가리
지금 무슨 생각 하는지 다 알거든요!
철썩!
아하하하….

‘봄 바다 전령사’ 주꾸미의 계절

4월 11일까지 무창포 주꾸미 축제

해산물은 제철에 먹어야 제맛이라 했다. 지난 겨울 ‘이기적인’ 한파 때문에 심신이 지쳤다면 3월 봄날 쫄깃쫄깃한 주꾸미로 원기를 회복하는 건 어떨까.

매년 3월 서해안에선 주꾸미 축제가 성황리에 열린다. 특히 충남 보령의 무창포항에서 열리는 주꾸미 축제는 신비의 바닷길과 방파제 낙조까지 어우러져 감동을 더한다. 다른 곳과는 달리 소라와 고둥의 빈 껍데기를 이용해 전통적 방식으로 무창포 주꾸미를 잡는 광경도 흥미진진하다.

2010년 무창포 주꾸미 축제는 3월 13일부터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펼쳐진다.

특히 올해에는 주꾸미 잡기, 먹통 따기 등 체험행사를 지난해보다 많이 마련했다. 알주머니를 터뜨리지 않고 내장을 떼어내는 주꾸미 손질법도 배울 수 있다.

밀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주꾸미를 닦는 것은 처음 접한 신기한 손질법일 터. 아이들을 위해 가두리 낚시, 통발어업 체험행사도 수시로 열린다. 이색적으로 ‘주꾸미 아가씨’가 아닌 ‘주꾸미 아저씨’ 선발대회도 즉석에서 개최된다.

무창포 바닷길 열리는 시간

3월	15일	08:56~09:31
	16일	09:20~11:11
	17일	09:35~11:42
	18일	10:33~12:06
	19일	11:30~12:16
	28일	07:24~09:28
	29일	07:56~09:28
4월	1일	10:16~12:22
	2일	11:21~12:36



소라 껍데기를 이용해 낚은 3월 제철 주꾸미.

소라 껍데기로 잡는 주꾸미 등 체험행사 가득

전라도, 경상도에서 ‘쭈깨미’ ‘쭈게미’라 불리는 주꾸미는 팔완목 문어과 연체동물로 낙지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20센티미터 정도로 작다. 회로도 먹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매콤하게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워 먹을 수도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다. 대학가 주변에는 주꾸미와 삼겹살을 함께 볶아 내놓는 일명 ‘쭈삼볶음’ 전문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꾸미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줄 뿐 아니라 타우린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에도 좋다. 담석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고 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중년 남성들에겐 ‘맞춤 보양식’이다.

산란기 직전이라 머리에 알이 꽉 들어찬 3, 4월은 주꾸미를 꼭 맛봐야 하는 제철이다. 그래서 ‘바다의 봄 전령사’라는 별칭도 붙었다. 특히 남도 바다에서 서해 연안으로 새우 먹이를 찾아 힘차게 돌진해 올라온 주꾸미는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주꾸미로 허겁지겁 배를 채웠다면 보령의 바다를 둘러보며 느긋한 휴식을 취해보면 어떨까. 이왕 바다까지 왔으니 하루는 넉넉하게 주꾸미 축제를 즐기고, 다음 날 아침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보령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스케줄을 잡는 게 좋겠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남포방조제, 죽도관광지, 용두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에 이르는 직선 해안선 코스가 특히 백미(白眉)다.

무창포해수욕장까지 아침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해수욕장으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진 석대도까지 열리는 바닷길에서 게, 조개 등을 잡는다면 환상의 하루를 열 수 있을 듯하다. 썰물 상태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에 감동이 밀려든다. G

글 · 유재영 기자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 Tel 041-936-3510

Books

소설로 풀어쓴 녹색 생활 이야기



Green is money
유복환 지음 / **위즈덤하우스 · 1만2천원**

10시 37분.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환경재단이 발표한 세계 기후위기시간이다. 기후위기시간은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식량 등 6개 요소를 종합해 환산한다. 12시가 되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

매년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녹지대가 사막으로 변하는 등 기후변화의 이상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접는다.

〈Green is money–김 대리의 환경노트〉는 당면 과제인 환경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소설 형식으로 펴낸 환경 지침서다. 평범한 회사원인 김 대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김 대리는 평소 환경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평범한 마트 직원. 그러나 회사가 다른 마트와 경쟁하다 밀려나는 위기를 겪자 태스크포스 팀으로 발령난다. 김 대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타사와 차별화되면서도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전략'을 주장한다.

마트 직원 김 대리의 회사 구하기… '지구 구하기'

회사는 김 대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에코 마트'를 만든다. 옥상 정원을 꾸며 에너지를 15퍼센트 절감하고 친환경 자재로 만든 어린이 놀이터,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가로등, 옥상에 설치한 소형 풍력발전기 등으로 마트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했다. 여기에 친환경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환경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서 뜨거운 지지를 받는다. '회사 구하기'와 '지구 구하기'란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생각에 김 대리가 뿌듯해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책은 김 대리의 삶을 통해 환경보호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일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기업, 국가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가르쳐준다.

'국내 최초의 스토리가 있는 환경경영 이야기'로 꼽히는 이 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온 환경부 유복환 국장의 첫 번째 환경 이야기책이다. 각 장마다 '김 대리의 환경노트'란 작은 코너를 만들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서부터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전문적인 환경지식도 소개해 유익하다. 또한 샤워 시간 1분을 줄이면 가구당 연간 4.3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친환경 실천 방법도 담겨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문학의숲 편집부 엮음 / **문학의숲 · 1만8천5백원**



3월 11일 입적한 법정 스님이 법회, 산문 등에서 언급한 책 50권을 추천한 책. 문학의숲 편집부는 법정 스님과 2년여간 대화를 나누며 책을 선정했다. 법정 스님이 경전이나 주석서 못지않게 자주 읽었다는 〈어린왕자〉, 〈꽃씨와 태양〉 같은 동화에서부터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는 〈톨스토이 민화집〉 등 다양한 책들을 소개한다. 스님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전한다.

남극 세종기지 북극 다산기지

김창덕 지음 / **W미디어 · 1만2천원**



우리나라는 남극과 북극기지를 함께 확보한 8번째 나라다. 남극 세종기지와 북극 다산기지는 오늘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며 인류의 더 나은 생존 환경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서울에서 1만7천2백40킬로미터 떨어져 가는 데만 나흘이 걸리는 남극기지와 북극기지를 세 번이나 다녀온 저자가 극지의 열악한 환경과 싸우는 연구원들의 삶과 일을 책에 담았다.

석유종말시계

크리스토퍼 스타이너 지음 · **박산호** 옮김 / **시공사 · 1만5천원**



과연 석유 없이 사는 삶이 가능할까. 미국 〈포브스〉지 수석기자인 저자는 1갤런당 유가가 2달러씩 오를 때 경제, 사회, 그리고 일반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정리해준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석유는 결국 고갈되기에 미래 도시의 해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그 예로 워싱턴D.C.처럼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천 송도 신도시를 꼽았다.

긍정과 부정 사이

글과 그림 · 최영순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을 망각한 채 가시만 쳐다본다.
– 칼릴 지브란

초상집이 절반인데 연극을 하겠다니…

연극 〈유랑극단 쇼팔로비치〉

일시 3월 28일까지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토·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엔 공연 없음)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644-2003 www.mct.or.kr



〈유랑극단 쇼팔로비치〉는 국내 관객들에게는 생소한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가 1975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1985년 유고 국립극장에서 초연됐다. 이후 1988년 옛 유고연방의 주요 도시를 거쳐 세계 각지에서 막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연출가 이병훈 씨가 1998년 공연예술아카데미 졸업 공연으로 첫선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공식 극장 무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작품은 2차대전 중 나치의 수중에 들어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에 유랑극단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멀쩡한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떠난 마을에는 여자와 주정뱅이 노인, 독일 점령군만 남았다. 총소리가 진동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공포 상황이다. 난리 통에 화려한 치장을 하고 연극을 알리러 다니는 배우들의 모습이 주민들의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

"세르비아 절반이 초상집인데 저것들은 연극을 하겠다니!", "시체 더미 앞에서 예술을 한다고?", "저 곡물시장 앞에 사형대를 못 본 건 아니겠지?"…. 이렇게 주민들은 유랑극단 배우들에게 억눌린 감정을 쏟아낸다. 이에 배우들은 "전쟁 중이라고 예술까지 그만둬야 하느냐"고 반문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친 상말과 위협뿐이다.

그러던 중 나무칼을 들고 연기하던 배우 필립이 살인범으로 오해받고 현장에서 총살당하는 사건이 터진다. 그 일로 살인 혐의를 쓰고 있던 마을 주민 세쿨라는 무죄가 된다. 필립의 나무칼이 세쿨라를 구한 것이다.

작품을 연출한 이 씨는 "배우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연극의 사회적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관객뿐 아니라 연극인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연극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겼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일시 3월 20일 오후 5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32-1148 www.sac.or.kr



〈마술피리〉, 〈카르멘〉 등의 콘서트 오페라를 제작해온 예술단체 문화뱅크의 창단 10주년 정기 공연. 도니제티의 희가극 오페라로, 우직한 청년 네모리노와 아름다운 여인 아디나의 사랑 이야기다. 국내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꼽히는 소프라노 박미자와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주역 가수 테너 이원준이 각각 아디나와 네모리노로 출연한다. 지휘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 최승한이 맡았다.

국립무용단의 특별 공연 〈코리아 환타지〉

일시 3월 20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3시(월요일 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한국의 전통춤과 창작품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재구성한 특별기획 공연.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국내는 물론 세계 70여 개국에서 선보여 뜨거운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국 춤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한 2010년 〈코리아 환타지〉는 '궁'을 시작으로 '품', '부채춤', '사랑가', '진도강강술래', '춘설', '장고춤', '소고춤', '기도' 등 총 9개 작품이 함께한다.



그린카드의 영광!



일반 축구경기에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는 불명예스런 반칙의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축구경기에만 있는 그린카드는 상대편 선수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도와주는 등,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나 감독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이옥형 감독은 6세 때 시각을 잃었지만
인생의 페어플레이를 실천한 진정한 '그린카드' 입니다.
스포츠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스포츠 활동으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www.kosad.or.kr

더 좋은 세종시

모든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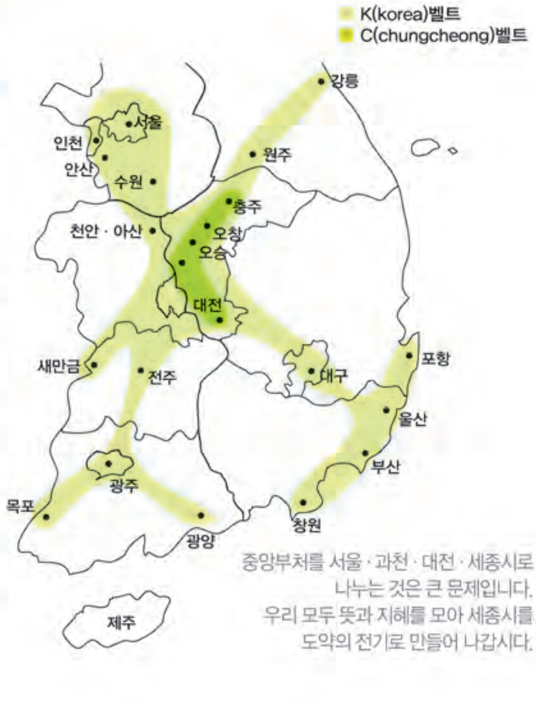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산과 국토 발전에 효과가 큰 대기업과 대학이 입주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재는 다른 지역과 교류하며 확산돼 전체 국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도시 · 혁신도시도 차별없이 지원합니다

세종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근 지역과 함께 하는 세종시 성공 모델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분권 · 특화 · 상생의 원칙으로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완성해 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합시다

광역경제권 사업에 올해도 4조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경제권은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서울 · 과천 · 대전 · 세종시로 나누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를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